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

영재 중학생의  
학년과 영역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도와의 관계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심리 전공

박 성 희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영재 중학생의  
학년과 영역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도와의 관계

지도교수 황희숙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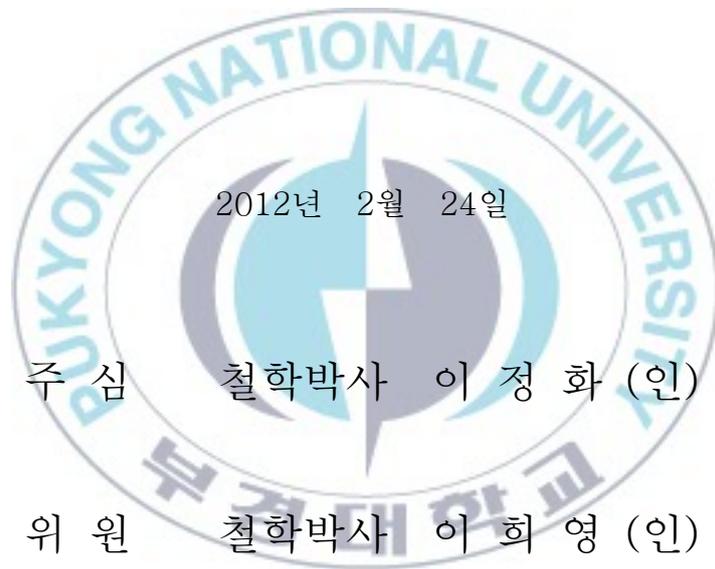
2012년 2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심리 전공

박성희

박성희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을  
인준함.



2012년 2월 24일

주 심 철학박사 이 정 화 (인)

위 원 철학박사 이 희 영 (인)

위 원 교육학박사 황 희 숙 (인)

# 목 차

목차 .....	i
표목차 .....	ii
Abstract .....	iii
<b>I. 서론 .....</b>	<b>1</b>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문제 .....	6
3. 용어의 정의 .....	7
<b>II. 이론적 배경 .....</b>	<b>9</b>
1. 영재성 .....	9
2. 자아탄력성 .....	27
3. 진로태도성숙 .....	31
<b>III. 연구 방법 .....</b>	<b>41</b>
1. 연구 대상 .....	41
2. 측정 도구 .....	43
3. 연구 절차 .....	46
4. 자료 처리 및 분석 .....	46
<b>IV. 연구 결과 .....</b>	<b>47</b>
1. 영재 중학생 자아탄력성의 학년별, 영역별 차이 .....	47
2. 영재 중학생 진로태도성숙도의 학년별, 영역별 차이 .....	50
3. 영재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도와의 관계 .....	53
<b>V. 논의 및 결론 .....</b>	<b>55</b>
1. 요약 .....	55
2. 논의 .....	57
3. 결론 및 제언 .....	64
<b>&lt;참 고 문 헌&gt; .....</b>	<b>68</b>
<b>&lt;부       록&gt; .....</b>	<b>76</b>

## 표 목 차

<표 1> 언어 영재의 특성 .....	16
<표 2> 정보 영재의 특성 .....	20
<표 3> B광역시 영재교육원의 기본 방향 .....	21
<표 4> 2011학년도 B광역시 영재교육기관 운영계획 .....	22
<표 5>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42
<표 6> 자아탄력성 측정 척도의 문항 구성과 신뢰도 .....	44
<표 7> 진로태도성숙도 측정 척도의 문항 구성과 신뢰도 .....	45
<표 8> 학년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 .....	47
<표 9> 학년에 따른 자아탄력성 하위요인의 다변량분산분석 .....	47
<표 10> 영역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 .....	48
<표 11> 영역에 따른 자아탄력성 하위요인의 다변량분산분석 .....	49
<표 12> 학년에 따른 진로태도성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	50
<표 13> 학년에 따른 진로태도성숙도 하위요인의 다변량분산분석 .....	50
<표 14> 영역에 따른 진로태도성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	52
<표 15> 영역에 따른 진로태도성숙도 하위요인의 다변량분산분석 .....	52
<표 16> 자아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도와의 상관분석 결과 .....	53

The Relationship between Ego-Resilience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f Gifted  
Middle School Students by the Grade and Field

Seong Hee Park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difference in ego-resilience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the relation between ego-resilience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f gifted middle school students by their field. (The fields considered in this study are languages, mathematics, science and information). To conduct this study, the following three research questions were posed.

First, is there a difference in ego-resilience of gifted middle school students depending on their grade and the field?

Second, is there a difference in career attitude maturity of gifted middle school students depending on their grade and the field?

Third, what relations do the ego-resilience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f gifted middle school students have?

To verify the above research questions, ego-resilience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tests were given to the 305 gifted students who are

taking special courses in Language Education Center, Science Education Center, and Information Education Center for gifted students provided by B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Of the 305 gifted students, 69 were gifted in languages, 70 in mathematics, 80 in science, and 86 in information.

Statistical package, SPSS 18.0 for Windows, was used to verify each research question.

First, the figure is expressed as a frequency and percentage to find out the general background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Second, Cronbach  $\alpha$  depending on the criterion was calculated to assess the reliability of criterion used on this study.

Third, a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was used to analyze the difference between ego-resilience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f the subjects by their grade and the field.

Fourth,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was used to find out the relation between ego-resilience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f gifted middle school student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 of a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showed that there was a meaningful difference in gifted students' ego-resilience by their grade. The result of Univariate Analysis showe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emotional control that is one of the sub-factors of ego-resilience among groups of subjects. That is, the figure of third graders was higher than first graders in their emotional control.

Second, the result of a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showed that there was a meaningful difference in gifted students' ego-resilience by the field. According to the result of Univariate Analysis, there was a difference among groups of students in their vitality, curiosity, and optimism which are sub-factors of ego-resilience. The result of Scheffe's posteriori tests showed that the vitality of gifted students in math was higher than gifted students in information ; the curiosity of gifted students in science was higher than gifted students in languages and information ; and the optimism of gifted students in math was higher than gifted students in information and languages.

Third, according to the result of a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there was a meaningful difference of gifted students' career attitude maturity by their grade. The result of Univariate Analysis showe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among groups in determination, independency, purpose, and confidence. That is, the figure of first graders was higher than third graders in determination, independency, purpose, and confidence which are sub-factors of career attitude maturity except for preparation.

Fourth, there was no meaningful difference in gifted students' career attitude maturity by the field according to the result of a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Similarly, there was no difference in determination, independency, purpose, and confidence among groups by the result of Univariate Analysis. That is, there was no meaningful difference in determination, preparation, independency, purpose, and confidence which are sub-factors of career attitude maturity by the

field.

Fifth, the result of analyzing the relation between ego-resilience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f gifted students showed that their ego-resilience has a positive correlation with determination, preparation, independency, and confidence which are sub-factors of career attitude maturity except for purpose. Their career attitude maturity has a positive correlation with interpersonal relations, vitality, curiosity, and optimism, which are sub-factors of ego-resilience except for emotional control.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 개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교육의 기본 이념에서 볼 때,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는 수월성 교육이야말로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교육 내용을 제공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개인의 잠재적 능력을 계발하고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로 바뀌면서 영재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세계화·정보화로 가는 현대 사회에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관심의 결과로 우리 나라의 영재교육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룩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영재교육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실시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고려해야 할 점이다. 더구나 1970년대 후반부터 교육의 기회 균등을 통하여 민주주의 평등사회를 이룬다는 목적으로 실시해 온 평준화 정책은 개인차를 무시한 획일적 교육으로 교육의 하향 평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잠재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들이 제 때에 적절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여 그 영재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는 2002년 ‘영재교육 종합 계획’을 발표하고 2008년 이후 영재교육 대상자를 1%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2004년도에 정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도 영재교육의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영재에 관한 연구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증가하

였다. 그러나 영재에 대한 양적인 연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재의 진로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 학생들은 중학교 시기에 비로소 미래의 직업을 염두에 두고 고등학교를 선택하게 되며, 이 시기의 선택이 개인의 진로 결정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영재학생들은 오히려 그 다재다능함으로 인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된다(Kerr, 1981).

진로란 개인의 전 생애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 것으로 개인의 태도, 가치관, 동기, 흥미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일과 활동을 의미하며 진로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개인마다 직업에 대한 태도와 흥미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즉 진로태도는 어느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해 변화·발전하는 과정으로서 개인이 어떤 경험을 했고 또 개인이 속한 문화의 속성이 무엇인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이기학, 1997). Crites(1961)는 진로성숙을 진로선택 과정에 나타나는 인지적·정의적 특성의 동일 연령층에서의 상대적 위치로서 보다 일관되고 확실하며 현실적인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영재의 진로성숙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유순화 외(2006)는 영재와 일반 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비교 연구에서 영재가 조기 진로성숙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조기 진로성숙 때문에 영재가 진로 상담을 받는 데 오히려 방치되었으며 영재에게도 진로상담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유리(2010)는 일반 중학생이 영재 중학생보다 진로태도성숙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영재학생은 진로를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하는 독특성을 가졌고 영재 중학생의 진로성숙도는 일반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보다 높다고 하였다(윤은순, 2006). 또한 김소아(2003)는 영재들은 매우 어린 시절부터 진로지도를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이해하고 흥미와 능력 범위 내에서 가능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상담자나 교육자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상호(2009)는 영재가 교사로부터 정보를 얻는 경우가 적어 직업과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영재의 진로 선택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영재학생들의 경우 일반 학생들과 신체적인 성숙정도는 비슷하나 정신적인 성숙정도의 차이가 심할 수 있고 그들이 겪는 갈등과 혼란 정도를 일선 학교와 영재교육기관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적절한 시기에 바람직한 진로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영재들에게 필요한 심리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연구가 보다 활발히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영재들 대상의 진로교육 및 상담이 적극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영재의 보다 효과적인 진로 상담을 위해서는 영재의 특성과 관련하여 진로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지능, 학업 능력, 인지 양식,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통제 소재, 의사결정양식 같은 개인 내적 요인과 사회경제적인 배경과 가족 관계 같은 개인 외적 요인 등이 많이 언급되었다(고향자, 1992; 김은진, 2000).

그런데 영재는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자아존중감이 높아 별다른 지도 없이도 자신의 진로를 잘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특출함으로 인해 고민이 많고 좌절감이 크게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위험 요소가 높은 환경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보호해 주는 모종의 개인적, 환경적 보호 요소에 의해 강인하고, 탄력 있게 적응하고 발달해 나가는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 문제를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준다. 국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연구는 적응을 잘하고 있는 집단에서 자아탄력성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다(유성경·심혜원, 2002).

우리는 궁극적으로 원만하고 풍요로운 인간관계 속에서 본인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며,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한다. 특히 청소년기는 모든 면에서 그 발달이 이전의 시기에 비하여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매우 역동적으로 발달한다. 이러한 청소년기에 내적·외적인 스트레스에 대하여 얼마나 융통성 있는 풍부한 적응 능력을 갖고 있는가 하는 자아탄력성 수준은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은 내적·외적인 스트레스에 대하여 융통성 있는 풍부한 적응 능력을 뜻한다(Block, 1980). 자아탄력성이 높은 이들은 가족 또는 타인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는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활동적이고 감정적으로 어려운 경험을 잘 헤쳐 나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삶의 의미에서 긍정적인 신념을 유지하는 강한 능력이 있다고 하였다. Block과 Kermen(1996)의 논문에 의하면 탄력성이 높은 경우 친구들에게 관대하며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관계적 성향을 가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영재의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인 요인 중 자아탄력성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영재의 자아 개념과 관련하여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정자영(2009)은 수학영재학생 집단의 평균이 일반학급학생 집단 평균 보다 자기효능감의 하위 요인인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 과제난이도 선호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했으며, 최정은(2011)은 자기효능감에 대한 학년별 비교 분석에서 수학영재와 일반학생은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지만 일반학생은 자신감의 하위 영역 중 자기조절 효능감에서 3학년이 1학년 보다 더 높은 성향을 보였다고 했다. 또한 자아탄력성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지각 수준과 진로성숙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회적 지지 지각 수준과 관련되어 있으며, 자신의 중

요한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해야 하는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중요한 적응 기제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최경자, 2007). 또한 오석구(2005)는 개인의 진로에 대해 심리적 구조 즉 가치관, 자아개념, 직업관, 진학관 등을 포함하는 의식 체계인 진로 의식이 높을수록 적응유연성(resilience) 즉 자아탄력성이 높다고 하여 자아탄력성과 진로성숙의 상관이 있음을 시사해 주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통해 볼 때 자아탄력성이 진로태도성숙과 관련된 문제에서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 나라의 초기 영재 교육은 수학·과학 영역에 치중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영재 교육이 진행됨에 따라 언어·정보·예술 등의 영역으로 확대, 다양화되고 있다. 이렇게 영역별로 영재교육기관을 달리하여 다른 교육과정으로 교육하고 있는 우리의 영재 교육은 Gardner(1983)의 다중지능이론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영역별 영재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역별 영재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영역별 영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적용해야 바람직한 영재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영역별 영재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교사는 영재의 개인 내적 변인인 자아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 변인과의 관계를 고찰하여 진로 선택의 문제에서 보다 성숙한 태도로 진로를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영역별 영재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인 중 영재의 진로태도성숙과 관련하여 자아탄력성과의 관계에 대해 규명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영역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판별된 영역별 영재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자아탄력성과 진

로태도성숙도의 학년별·영역별 차이를 살펴보고, 아울러 자아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도와의 관계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영재 중학생의 보다 바람직한 진로교육과 상담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나아가 영재의 수월성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본 연구의 교육적인 시사점이 있다.

##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 중학생의 자아탄력성은 영재의 학년별, 영역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영재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도는 영재의 학년별, 영역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영재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도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용어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영역별 영재 중학생(Gifted Middle School Students)

본 연구에서 영역별 영재 중학생이란 B광역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영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중학교 영재 학생을 말한다. B광역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기관 중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지역영재교육원 영재를 제외하고, K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언어영재교육원의 언어 영재, 과학영재교육원의 수학영재와 과학 영재, 정보영재교육원의 정보 영재 중학생으로 한정하여 영역별 영재 중학생으로 정의하였다.

#### 나. 자아탄력성(Ego-resilience)

자아탄력성은 변화하는 환경에서 개연성 있는 상황적 사건에 대한 풍부한 적응능력이며, 인지적·사회적·개인적 영역에서의 문제해결이 가능한 융통성 있는 능력을 말한다(Block과 Block, 1980). 본 연구의 자아탄력성은 상황의 요구에 따라 자아통제를 강화하거나 완화시키는 메타적인 능력을 의미하며, 자아의 동기조절능력과 인지적 능력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의 자아탄력성은 Block과 Kremen(1996)의 자아탄력성 척도와 O'connell-Higgins(1983)의 자아탄력적인 아동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박은희(1996)가 개발한 설문지를 송혜리(2009)가 수정한 자아탄력성 척도 개정본을 측정도구로 검사한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에 대한 점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 다. 진로태도성숙(Career Attitude Maturity)

진로태도성숙이란 자신과 직업 세계의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연령이나 발달 단계에 있는 집단의 발달과업 수행정도가 차지하는 개인의 상대적 위치라고 할 수 있다. 즉, 개인이 진로 선택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진로태도성숙의 하위변인으로 결정성, 준비성, 독립성, 목적성, 확신성을 하위 요인으로 포함하며, 이기학(1997)이 개발한 진로태도성숙 척도를 측정도구로 검사한 점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영재성

#### 가. 영재성의 정의

영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효과적인 영재판별과 제공되는 교육프로그램의 성격이 좌우되므로 영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정의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영재성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고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국가나 사회에 따라 서로 상이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재란 비상한 능력이나 재능을 소유한 사람을 지칭한다. 우리가 영재 연구 문헌에서 접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말은 ‘gifted’와 ‘talented’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용어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영재성(giftedness)과 재능(talent)을 동일한 뜻으로 쓰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를 완전히 구분하여 달리 사용하기도 한다. 다양한 측면에서 뛰어난 능력이나 잠재력을 보이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박성익 외, 2003).

Binet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선별해 내려는 목적으로 지능검사를 만든 이후 영재에 대한 최초의 개념 규정은 Terman에 의해 이루어졌다. Terman은 적당한 직무에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1921년 영재아동을 가려내기 시작해 1925년에는 영재를 판명함에 있어서 ‘스탠포드-비네검사를 통하여 나온 지능 지수가 140이상인 자, 또는 동일 연령 집단에서 상위 1%의 점수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Terman, 1925). 그 이후 많은 연구들이 지능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영재를 정의하기 시

작하였는데 이러한 영재성 개념들은 ‘지능 검사’ 결과에만 의존하여 지적 영재에만 초점을 맞추므로서 다른 정의적인 특성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송수지, 1999).

Gardner(1983)는 다중지능이라는 개념 하에 인간의 지능은 9가지 서로 다른 지능이 존재하며, 그것의 발달은 서로 다른 경로를 거치게 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각각의 지능은 대체로 사회 구성원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분야로서, 각 분야의 기능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기능을 갖추고 있고, 두뇌 신경 체계에 각각의 지능에 해당하는 부위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선정되었다. 그 9가지 지능은 언어 지능, 논리·수학적 지능, 공간 지능, 음악적 지능, 신체운동적 지능, 대인간 지능, 개인 내적 지능, 자연 지능, 영적지능이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다중지능 이론에 근거하여 Gardner(1983)는 ‘한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개인이 타고난 우수한 잠재 능력을 가진 자’를 영재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가 시사해주는 것은 영재아를 담당하는 교육자들은 영재의 증거로서 각 영역에서의 강점을 살펴보고 그러한 능력을 계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해야 한다는 것이다.

Sternberg(1985)는 영재성을 자신이 제시한 성공지능의 삼위이론(Triarchic Theory of Intelligence)에 바탕을 두어 정의하였다. 첫째, 분석적 영재성은 지능검사와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내는데 뛰어난 능력으로 지적 행동을 계획하고 수행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심리적 과정과 기제를 얼마나 잘 구사하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둘째, 종합적 영재성은 주로 비전통적이고, 통찰력이 있고, 창의적인 사람들이 주로 나타내는 영재성이며,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려 할 때 잘 나타난다. 셋째, 현실적 영재성은 지적 행동을 자기의 생활과 관련된 실제 환경에 의도적으로 적응하고, 자신에게 적절한 환경을 선택하거나 이를 바꾸어 가는 능력이다. 이런 여러 지

능들이 어떻게 조합되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영재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영재성이란 여러 지능이 잘 조화를 이룬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Feldhusen(1992)은 영재성을 ‘지능, 적성, 재능, 기능, 전문성, 도기, 창의성의 복합체로서 한 개인이 문화와 시대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분야에서의 생산적인 수행을 하도록 이끄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영재는 조기에 유전적으로 결정된 어느 정도의 능력이 지역 사회나 가정, 학교와의 경험을 통하여, 또한 개인이 가진 학습스타일 등을 통해 개발되어 나간다고 하였다.

Gagne(2000)는 타고난 영재성과 계발된 특수재능을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영재성은 천성적으로 타고 났거나 체계적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흔히 적성이라 불리우는 인간의 능력을 영재성이라고 보았고, 이러한 영재성이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인간의 특정 활동 분야에서 전문적인 능력이나 기능으로 나타났을 때 이를 특수 재능이라고 했다.

미국 연방 정부 교육부(United States of Office of Education, USOE 1978)는, “영재아란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서 훌륭한 성취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별된 아동으로서 그 자신과 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규 교육과정이 제공하는 것 이상의 변별적인 특별 교육 프로그램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다. 뛰어난 아동들은 다음의 한 분야 또는 여러 분야에서 이미 성취를 나타내거나 성취할 잠재 능력이 있는 아동들이다. 일반 지적 능력(General Intellectual Ability), 특수 학문 적성(Specific Academic Aptitude),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사고(Creative and Productive Thinking), 리더십(Leadership Ability), 시각 및 공연 예술(Visual and Performing Arts), 심리운동 능력(Psycho-motor Ability) 등의 기준을 사용하여 판별하면 영재는 전체 학생의 3~5%를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정의하였다.

이 정의는 1978년 미 의회수정을 거쳐 1988년 ‘영재와 재능아란 지능, 창

의성, 예술성, 리더십이나 특수한 학업 영역에서 뛰어난 능력을 입증했거나 그러한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기 위해서 일반 학교교육 이상의 교육적 서비스나 활동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말한다.’와 같이 되었다.

사회에 공헌하는 창의적, 생산적 사람이나 위인들에 대한 기술을 바탕으로 Renzulli(1986)는 “영재 행동이란 평균 이상의 일반 혹은 특수 능력, 높은 과제 집착력(동기), 높은 창의성과 같은 세 가지 기본적인 인간 특성의 상호 작용으로 나타난다. 영재와 재능아는 이러한 특성을 소유하고 있거나 장차 발달시킬 가능성이 있는 아동으로서 인간이 수행하는 잠재적으로 가치 있는 분야에 이러한 특성들을 적용하는 아동이다.”라고 하였다.

Renzulli 이론의 특이한 점은 처음으로 ‘과제집착력’이라는 비지적인 요인을 영재성의 한 요소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그는 영재란 이 세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이 세 가지 특성에서 모두 뛰어나야 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한다. 한 특성에서는 적어도 2% 이내에 속해야 하지만 나머지 특성에서는 상위 15% 이내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각 개인이 가진 영재성이 발현하려면 환경적인 영향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2000년 1월 고시된 영재교육진흥법 제 2조 제 1항에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 나라 영재교육진흥법은 영재를 구분 짓는 구체적 특성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함으로써, 영재교육에 대한 실제적 접근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의 영재의 개념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요소는 재능과 창의성 그리고 동기나 과제집착력과 같은 정의적 특성이다. 특히, 영재는 ‘재능, 창의성 및 정의적인 특성에서 영재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영재교육을 통해 잠재력을 향상시켜 앞으로 창의적 성취를 이룰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윤여홍, 2000).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모두가 합의하는 영재와 재능의 정의는 없으며, 프로그램이 어떠한 정의를 선택하는가는 판별 도구와 절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이 선택한 도구와 의사결정 준거에 따라 누가 영재아와 재능아인지, 즉 누가 특별교육을 받을 것인지를 실제적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송인섭 외, 2001).

## 나. 영재의 특성

박성익 외(2003)와 Rimm(2005)의 연구에 따르면 영재학생의 인지적 정서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정자영, 2009 재인용).

우선, 인지적 특성으로는 지적 호기심이 높으며 아주 호기심이 많고 진지하다. 주변의 환경에 대해 궁금함과 흥미, 관심을 지니고 있다. 관련된 책도 많이 읽고 정보습득이 빨라 다양한 정보를 보유하고, 정보나 지식의 양도 매우 풍부하다. 부모나 교사가 시켜서 하기 보다는 자기 스스로 하고자 하는 내적동기가 높다.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도전적인 과제를 공부하고 토론하고 싶어 한다. 영재는 언어능력이 뛰어나며 언어 발달이 빠르고 사용하는 어휘양도 다양하고 자기 연령 수준보다 높은 어휘수준을 지니고 있다. 영재는 또한 창의적이며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은 반복적인 것을 싫어하고, 일방적이거나 전통적인 교수학습방법에 의문을 제기하고 거부하거나 이를 수용하지 않으려 한다. 영재는 사고능력이 높다. 사고과정이 논리적이고 신속하여 판단능력이 우수하고,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 과정을 즐긴다. 단순한 것보다는 복잡한 문제를 좋아하고, 복잡한 상황을 파악하여 대안을 생각하고 추상적으로 사고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 결과를 예측하고 일반화하는 종합적인 사고를 즐긴다. 영재는 주의집중력이 뛰어나다. 어릴 때부터 일반 아동들보다 자신이 흥미

있고 관심 있는 것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으며, 또한 오랫동안 주의집중을 지속시킬 수 있다.

영재학생의 정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Clark(1992)는 정서적으로 예민하며 영재들의 열정적이며 강렬한 집중력이나 힘 또는 에너지는 재능 및 감각, 지적, 상상, 정서영역에서 정신적인 과흥분적 형태로 표현되는 일종의 자기 성장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잠재력이라고 했다. 그들은 완벽주의 성향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우수한 수준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와 과도하게 높은 기대를 거는 경향을 지니고 있는데, 자신이 질적으로 우수해야 한다는 자각과 어릴 때부터 받아들인 주변 사람들의 칭찬으로 인한 정적 강화와 사회 학습의 결과에 기인한다. 완벽주의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성취를 위한 힘과 동기를 부여하지만 자기 능력 이상의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비생산적으로 과다하게 소모하면,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실패 느낌을 받는다.

Loeb과 Jay(1987)는 영재는 자아개념과 자기 통제력이 높다고 했다. 주어진 일을 끝까지 해내려는 욕구와 함께 과제집착력과 끈기, 인내심도 갖고 있다. Colangelo와 Kelly(1983)는 영재, 일반아, 학습장애아로 판별된 7-9학년 아동의 자아개념을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영재의 자아개념이 일반아 보다 의미 있게 높았으며 일반아의 자아개념은 학습장애아 보다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유머감각도 뛰어나다고 보았다. 윤여홍(1996)의 연구 결과 영재는 내향적이고 독립적이며 자신감이 높다. 영재들의 높은 내적통제와 강한 책임감은 영재들로 하여금 스스로 높은 목표를 설정하도록 한다. 영재는 도덕적 사고를 하고 정의감이 있다고 했다. Ludwig과 Cilliam(1984)은 영재들은 공정하고 정직하며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고 반사회적 행동이나 학교에서 문제행동을 덜 일으킨다고 했다. 영재는 도전성과 회피성

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실패나 비판을 두려워하기보다 도전하고 성취를 향해 전진해나가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영재는 가능성을 보는 것과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한 잠재적인 문제도 인식한다. 영재들 중에는 간혹 위험을 피하려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다소 자아개념이 낮거나 실패의 경험이 있는 아이, 경쟁적인 아이, 특히 미성취아동에게서 볼 수 있으며(Rimm, 1995), 강박적이거나 지나치게 소심하거나 의존적인 아동들에게서 발견된다. 또한 심순미(2008)는 영재 중학생의 영재 영역별로 뇌선호 경향을 분석한 결과, 좌뇌선호가 가장 높은 집단은 수학·과학영재, 우뇌선호가 가장 높은 집단은 예술 영재, 통합뇌선호가 가장 높은 집단은 언어 영재로 나타났다. 또한 영재 중학생의 뇌선호 경향을 학년별로 분석한 결과, 1학년의 우뇌선호가 3학년으로 갈수록 좌뇌선호와 통합뇌선호로 변화했다고 하였다.

영재의 특성은 영재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며, 영재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적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에는 연구자들의 관심이 영재들 간에도 영역 간의 차이, 개인 간의 차이가 크다는 것에 집중되어서 일반적인 기준으로 선발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이신동 외 2009). 본 연구에서는 영역별 영재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므로 영재 중학생의 영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언어 영재

강승희(2001)는 언어 영재에 대한 개념을 두 가지 흐름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나는 언어적 지능면에서 영재성을 규정하고자 하는 입장으로 Gardner(1983)와 같이 언어적 지능을 주장한 지능이론가들이나 지능 검사 도구, 언어능력검사 도구를 통해 언어영재를 판별하고자 했던 연구들이 이에 해당된다. 또 하나는 언어 영역별 능력면에서 언어 영재를 규정하는 입

장으로 말하기, 듣기, 읽기, 문예창작을 포함한 쓰기 중 어느 한 영역 또는 그 이상의 영역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2002)에서는 언어 영재의 특성을 다음 <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1> 언어 영재의 특성

구분	특성
언어의 초기 습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기에 문자를 해독함.</li> <li>- 조기에 언어적 상징을 사용함.</li> </ul>
언어의 이해와 표현	<p>언어이해 능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깊이 있는 이해</li> <li>- 빠른 읽기 속도</li> <li>- 방대한 어휘</li> <li>- 핵심 아이디어를 생각하여 읽음</li> <li>- 언어의 구조를 잘 이해함</li> <li>- 감상력과 비판력이 뛰어남</li> </ul>
	<p>언어표현 능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잡한 사고를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남</li> <li>- 탁월한 어휘 사용 능력</li> <li>- 작시에 뛰어남</li> <li>- 문법 지식의 활용 능력이 뛰어남</li> <li>- 역설의 사용</li> <li>- 창의적인 언어 사용</li> <li>- 상세한 묘사</li> <li>- 고급 어휘력을 사용</li> </ul>
언어 습관 및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읽기와 쓰기에 장시간 몰두(탐독과 다독)</li> <li>- 논리적인 대화나 토론을 즐김</li> <li>- 단어 퍼즐이나 언어적 유희(유머를 포함) 즐김</li> </ul>

이러한 언어 영재성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조석희(2003)는 언어 영재들이 추구해야 할 교육목표는 언어 행동에서 뛰어난 성취를 보이는 것 이어야 한다고 보아 ‘말하기, 읽기, 외국어, 글짓기의 네 분야에서 뛰어난 수행이나 성취를 보이는 자’라고 하였다.

## (2) 수학 영재

Renzulli의 일반적 성취 영역에서는 수학 영역, Gardner의 9가지 지능에 서는 논리·수학적 지능 영역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사람을 의미한다. NCTM(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Mathematics, 1987. 박성익 외, 2003 재인용)은 수학 영재들이 가지고 있을 만한 행동 특성을, 일반적 행동 특성, 학습 행동 특성, 창의적 행동 특성, 수학적 행동 특성의 4가지로 나누고 있다. 그중 수학적 행동 특성으로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 수에 대한 조기의 관심과 이해
- 수와 공간적 관계에 대한 논리적이고 상징적인 사고 능력
- 수학적 패턴, 구조, 관계, 그리고 연산에 대한 지각과 일반화 능력
- 수학적 활동에서 지적 처리 과정의 유연성과 가역성
- 수학적 기호, 관계, 증명, 풀이방법 등을 기억하는 능력
- 학습한 것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
- 수학적 문제를 풀이하는 데 있어서의 활동력과 지속성
- 수학적 지각력

또한 김홍원 외(1996)는 수학 영재는 수학 영역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루 었거나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으로, 정규 프로그램 이상의 특별한 교 육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며 수학 영재는 수학적 사고능 력, 수학적 과제 집착력, 수학적 창의성, 배경지식의 유인에서 평균 이상의 높은 능력을 지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Johnsen(2003)도 수학 영재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 수치 분석에 관심이 많다.
- 문제와 문제 해결의 중요한 특징에 대해 매우 잘 기억한다.
- 문제 해결 과정이 간단명료하며 일부 과정을 생략하는 경향이 있다.
-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론한다.

- 통찰을 이용하여 직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 사고 과정을 거꾸로 생각할 수 있다.
- 수학적 지식을 즉흥적으로 만든다.
- 문제 해결에 있어서 융통성이 있다.

위의 연구에서 열거한 수학 영재의 특성을 통해 볼 때 수학 영재란 ‘수학을 도구로 하는 수학적 활동을 통해서 인류 문화·문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3) 과학 영재

과학 영재는 영재의 개념에서 평균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 중에서 과학 분야에 특별한 과제집착력을 보이며, 과학 분야에서 창의성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박성익 외, 2003).

과학 영재의 특성에 대한 Roe(1975), 한종하(1987), 이군현(1990) 등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과학 영재는 다음과 같은 인지적, 정의적, 창의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손영완, 2006 재인용).

#### (가) 인지적 특성

- 수준 높은 어휘를 사용하며, 언어의 표현력이 풍부하다.
-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고, 질문에 대해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 다양한 방면에서 풍부한 정보량을 가지고 있다.
- 예민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어 동일한 현상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다.
- 논리적인 사고력이 뛰어나다.
- 원리 파악능력과 일반화 능력이 뛰어나고 빠르다.
- 복잡한 현상을 단순화하여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논리적 추리로 상식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다.
- 구조화되지 않은 융통성 있는 문제를 좋아한다.

(나) 정의적 특성

- 관심 있는 주제나 문제에 몰입하고 과제를 완벽하게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다.
-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
-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은 외적 동기가 없어도 잘 수행한다.
- 높은 수준의 자신감, 모험심, 독립심을 갖고 있다.
- 선생님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 현상이나 문제를 구조화하기 좋아한다.

(다) 창의적 특성

- 여러 가지 일에 대해 호기심을 보여 항상 많은 질문을 한다.
-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낸다.
- 지적 유희를 즐기고 주어진 문제나 상황을 개선하는 데 관심이 많다.
-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일상 생활에서 유머를 찾아내는 센스가 있다.

(4) 정보 영재

오세균(2002)은 컴퓨터 분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학, 과학 분야의 특성을 참고하여 컴퓨터 영재의 정의를 “컴퓨터 영재란 일반적 지적 능력, 컴퓨터에 대한 강한 호기심, 높은 창의력, 수학·언어적 능력, 과제 집착력의 요소에서 평균 이상의 특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응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디지털 콘텐츠, 멀티미디어 등에 관심을 가지고 컴퓨터적 지각력, 일반화하는 능력, 추론력,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문제를 분석하고 그들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 컴퓨터적 표현 능력, 적용력, 활용력이 뛰어나고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정의하고 정보 영재의 특성을 다음 <표 2>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2> 정보 영재의 특성

구분	특성
일반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기의 뛰어난 이해력과 사물조작 능력이 탁월함</li> <li>- 기본 기능의 빠른 습득</li> <li>- 올바른 판단력</li> <li>- 호기심이 많음</li> <li>- 새로운 생각, 또는 도전에 열성적임</li> </ul>
응용소프트웨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대한 상상력과 응용력</li> <li>-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li> <li>- 추측과 가설을 잘 세움</li> </ul>
프로그래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요한 원리를 잘 파악하고 일반화시키는 능력이 우수함</li> <li>- 원인과 결과에 대한 통찰</li> <li>- 새로운 생각과 방법을 즐김</li> </ul>
멀티미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한한 상상력</li> <li>- 예술적 감각이 뛰어남</li> <li>- 침착하고 섬세함</li> <li>- 창의적 활동이 우수함</li> <li>- 사물에 관한 예리한 관찰력</li> </ul>
디지털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착력</li> <li>- 무한한 상상력과 응용력</li> <li>- 강한 승부욕</li> <li>- 지배하고자 하는 의욕</li> <li>- 타인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의욕</li> <li>- 사태 파악 능력이 탁월함</li> <li>- 과감한 결단력</li> </ul>

김용(2008)은 정보 영재를 ‘여타의 다른 영재 특성에 정보 분야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 재능, 정보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정보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자’라는 특성을 추가하여 정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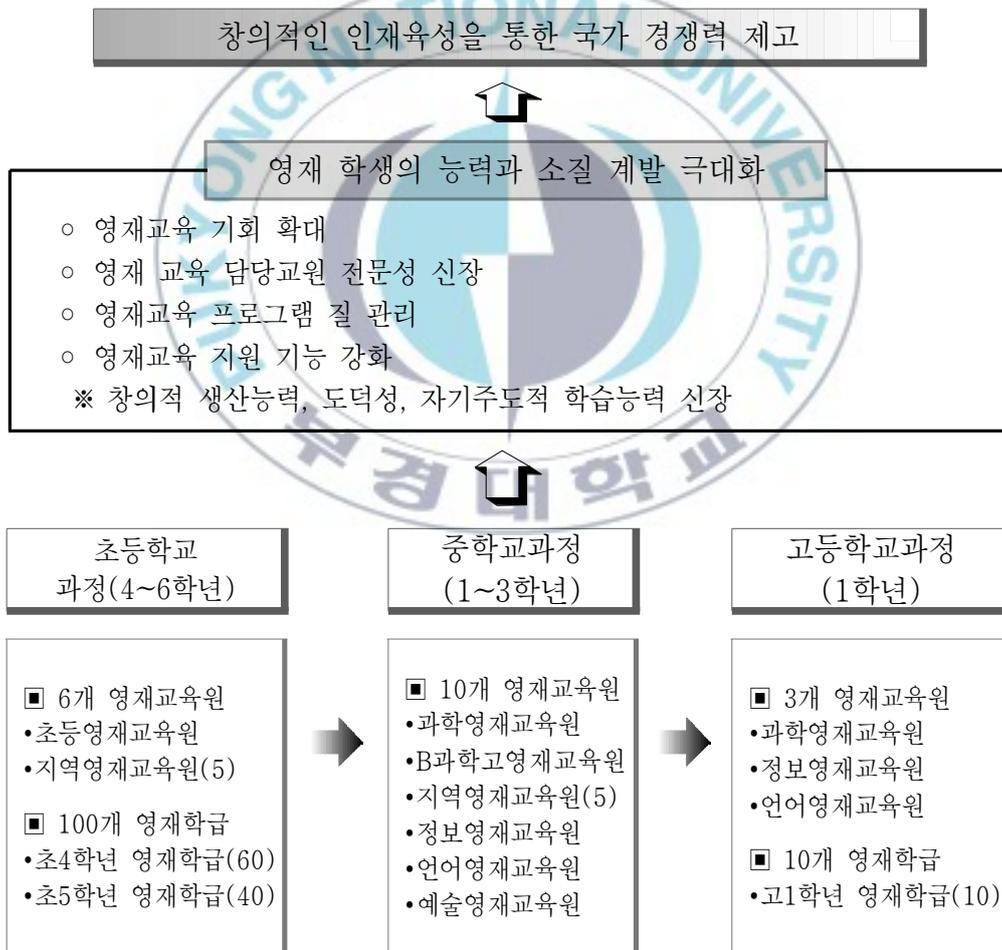
## 다. 영역별 영재 교육 현황

본 연구의 대상자가 속한 B광역시교육청의 2011년 영역별 영재교육 현황은 다음과 같다(2011 B광역시 영재교육 기본계획).

### (1) B광역시 영재교육원의 기본 방향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B광역시 영재교육원의 기본 방향은 <표 3>과 같다.

<표 3> B광역시 영재교육원의 기본 방향



(2) 2011학년도 영재교육기관 운영계획

2011학년도 B광역시 영재교육기관 운영계획은 <표 4>와 같다.

<표 4> 2011학년도 B광역시 영재교육기관 운영계획

구분	명칭	설치 기관	교육 영역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계		
				학급수	인원수	학급수	인원수	학급수	인원수	학급수	인원수	학급수	인원수	학급수	인원수	학급수	인원수	학급수	인원수	
영재교육원	초등	어린이 회관	수학	2	40	4	80	4	80										10	200
			과학	2	40	4	80	4	80										10	200
	부산 과학고	부산 과학고	수학							1	20	1	20	1	20				3	60
			과학								1	20	1	20	1	20			3	60
	과학 교육원	과학 교육원	수학							2	40	2	40	2	40	1	15	7	135	
			과학								3	60	3	60	3	60	2	30	11	210
	정보	교육연구 정보원	정보							4	80	4	80	4	80	1	15	13	255	
	언어	국제고	언어							2	40	2	40	2	40				6	120
			인문 사회							1	20	1	20	1	20				3	60
			창작							1	20	1	20	1	20	1	15	4	75	
	예술	학생교육 문화회관	음악							1	10	1	10						2	20
			미술							1	15	1	15						2	30
	<b>6개 기관 계</b>				<b>4</b>	<b>80</b>	<b>8</b>	<b>160</b>	<b>8</b>	<b>160</b>	<b>17</b>	<b>325</b>	<b>17</b>	<b>325</b>	<b>15</b>	<b>300</b>	<b>5</b>	<b>75</b>	<b>74</b>	<b>1,425</b>
	5개 지역영재교육원	5개 지역청	수학	1	20	3	60	3	60	3	60	3	60	3	60				16	320
			수학 (셋별)			1	20	1	20										2	40
			과학	1	20	3	60	3	60	3	60	3	60	3	60				16	320
			정보			1	20	1	20										2	40
창작					1	20	1	20	1	20	1	20	1	20				5	100	
발명					1	20	1	20										2	40	
소계			2	40	10	200	10	200	7	140	7	140	7	140				43	860	
<b>5개 지역청 계</b>				<b>10</b>	<b>200</b>	<b>50</b>	<b>1,000</b>	<b>50</b>	<b>1,000</b>	<b>35</b>	<b>700</b>	<b>35</b>	<b>700</b>	<b>35</b>	<b>700</b>	<b>0</b>	<b>0</b>	<b>215</b>	<b>4,300</b>	
<b>영재교육원 계</b>				<b>14</b>	<b>280</b>	<b>58</b>	<b>1,160</b>	<b>58</b>	<b>1,160</b>	<b>52</b>	<b>1,025</b>	<b>52</b>	<b>1,025</b>	<b>50</b>	<b>1,000</b>	<b>5</b>	<b>75</b>	<b>289</b>	<b>5,725</b>	
영재학급	단위 학교 영재학급	5개 지역청	수학·과학	12	240	8	160											20	400	
			소계	12	240	8	160											20	400	
	5개 지역청 영재학급 계		60	1200	40	800												100	2000	
	고등학교 영재학급															10	150	10	150	
	<b>영재학급 계</b>				<b>60</b>	<b>1200</b>	<b>40</b>	<b>800</b>								<b>10</b>	<b>150</b>	<b>110</b>	<b>2150</b>	
<b>총 계</b>				<b>74</b>	<b>1480</b>	<b>98</b>	<b>1960</b>	<b>58</b>	<b>1160</b>	<b>52</b>	<b>1025</b>	<b>52</b>	<b>1025</b>	<b>50</b>	<b>1000</b>	<b>5</b>	<b>75</b>	<b>399</b>	<b>7,875</b>	
				<b>230학급 4600명</b>				<b>154학급 3,050명</b>				<b>15학급 225명</b>								

## 라. 영재 중학생의 진로지도

중학생은 지적인 성숙과 함께 신체적인 변화와 심리적인 동요를 거치는 사춘기를 겪는다. 이 시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의 전환 시기로서, 영재학생은 자신의 재능에 변화를 느끼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는 자신이 영재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보다는 재능영역이 어느 영역인지와 어느 정도 재능을 갖고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재능 영역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더 특수 재능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재능 영역과 진로 및 성인 생활에 대해 고민한다. 따라서 그동안 자신에게 영재의 특성이 있다고 믿어왔던 것이나 사회가 부여해준 가치도 한번쯤 의심해보거나 회의를 갖게 되고, 자기 자신이 과연 그만한 재능과 가치가 있는지를 고민하게 된다. 특별히 자아정체감의 위기를 일찍부터 겪는 청소년기는 영재학생이 자신의 재능을 발달시키고 유지하기에 민감한 시기인 것이다(박성익 외, 2003).

이러한 영재의 진로지도가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나 상담자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Colangelo, 1991, 박성익 외, 2003 재인용). 첫째, 영재는 다재다능함으로 인하여 영재가 다양한 분야에서 전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으면서도 한 두 개의 특정 분야만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다. 둘째, 진로선택에 있어서 영재학생은 남들보다 높은 능력을 지니고 있는 만큼 사회 문화 및 경제적으로 더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높은 전문직을 갖도록 주변 사람들로 부터 압력을 받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며 셋째, 각 진로 영역이 갖는 가치는 사회가 부여해 주는 가치기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회적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넷째, 가족과 학교 관계자들이 영재가 좀 더 사회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대학과 전문 경력을 선택하도록 기대하기 때문에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결정하거나 자기 욕구에 맞게 진로를 선택하기가 어렵다. 다

셋째, 영재 자신이 또래나 교사, 학교 당국과 함께 자신의 진로나 인생의 목표 등에 대하여 논의할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심재영, 박은영(2003)의 연구 결과 현재 우리 나라 과학 영재 학생은 평소의 의논 상대로 교사나 전문 상담가 보다는 친구나 선배, 혹은 부모님께 의존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영재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이 부재된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학생 시기는 민감성을 가진 영재 학생에게 특히 올바른 잠재력 개발을 위해 진로지도가 중요한 시기로서 영재의 진로 지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먼저 영재 중학생과 일반 중학생의 진로성숙도를 비교한 국내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윤은순(2006)은 영재 중학생의 진로성숙도가 일반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보다 높다고 보고하고 있고, 유순화 외(2006)는 영재와 일반 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비교 연구에서 영재가 조기 진로성숙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조기 진로성숙 때문에 영재가 진로 상담을 받는 데 오히려 방치되었으며 영재에게도 진로상담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유리(2010)는 일반 중학생이 영재 중학생 보다 진로태도성숙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영재의 진로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허재환(2002)은 과학고 학생의 90.7%가 학교에서 장래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해 진로지도의 필요성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은진(2001)은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독특한 진로 발달 욕구를 가지고 보통 학생들과는 다른 어려움을 지니는 것을 보고하며, 앞으로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상호(2009)는 영재가 교사로부터 정보를 얻는 경우가 적어 직업과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영재의 진로 선택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과정의 개발

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전유진(2006)은 영재는 초등학교 때부터 직업에 대한 공부를 하고 진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일반 아동에 비해 높으며,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대한 인지정도와 기대가 높았다고 하였다.

영재의 진로발달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로 박은선(2007)은 초등 영재를 대상으로 진로성숙의 하위영역 중 하나인 진로 태도 발달을 위한 진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진로태도가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진로성숙도의 주요 영역인 진로능력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으므로 이를 보강한 진로 집단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김소아(2003)는 영재는 진로선택의 첫 번째 기준을 적성과 흥미로 하며 금전에 대한 선택빈도는 낮다고 하였으며, 효율적인 진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흥미, 성격 특성, 능력에 대한 신념과 포부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다재 다능성을 가진 영재들에게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상담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연구로 윤여홍(2000)은 장기 목표를 위한 동기, 좌절이나 실패로부터의 회복력, 상황 대처능력, 자신감, 자긍심, 협동력, 지도력, 도덕성, 인내력, 과제집착력, 자기 훈련, 자기 조절 및 관리능력 등에 초점을 둔 교육과 지도가 영재에게 꼭 필요하다고 했다. 영재에게 제공되는 적절한 교육과 지도는 지적 및 정의적 측면 모두 필요하며, 가정과 학교 및 지역 사회의 심리 전문가는 서로 상호 협조하여 적절한 정서 지도와 문제 행동의 해결 및 예방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 외 연구를 살펴보면, 김현옥(1989)은 지능이 높은 집단일수록 진로성숙도에 차이가 있었다고 하고, 윤은순(2006)은 진로선택에 있어 과거의 영재에게는 경제적 요인과 직업의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했다면 오늘날의 영재는 가치, 가능성 또는 흥미를 중심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영재의 영역별·학년별 차이를 고찰한 연구로 황희숙 외(2006)는 영재 중학생의 영역에 따라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정보 영재가 수학, 과학 영재에 비해 진로성숙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3학년 영재 학생들의 진로성숙도가 1학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진로의 사결정유형 중 상호의존형에서 과학 영재와 정보 영재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고, 영재들은 합리적 유형과 상호의존적 유형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영재의 진로성숙에 대한 연구는 영재와 일반 학생의 비교 연구나 조기 진로 성숙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영재의 보다 바람직한 진로교육의 필요성과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도 꾸준히 지적되어 왔으나 부족한 수준이며, 특히 영역별 영재의 자아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를 고찰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재의 진로태도성숙과 관련하여 개인내적인 요인인 자아탄력성과의 관계를 영재 중학생의 학년별, 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2. 자아탄력성(Ego-Resilience)

### 가. 자아탄력성의 개념

자아탄력성은 어렵고 힘든 성장과정을 보낸 아동과 청소년들이 비행과 다양한 병리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스트레스에 저항적이며 환경적 어려움에 잘 기능하여 성공적인 성인으로 적응한다는 관찰을 통해서 관심을 받게 되었다.

Block과 Block(1980)은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을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 특히 좌절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이라고 소개하였다. 또한 개인이 처한 환경적 요구에 대해 자기통제 수준을 조절함으로써 심리적 균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도록 하는 역동적인 능력이라고 하였다(Block & Kremen, 1996). 즉 자아탄력성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상황적 요구에 맞춰 행동적 통제수준을 줄이거나 증가시키고, 주의력을 제한하거나 확장하며, 자아의 작용을 원활히 하거나 퇴보시키는 등 자신내부의 작용을 통해 정서와 행동을 조절하고, 광범위한 행동들에 대한 예언을 가능하게 하는 성격특질로서 제시하였다.

Block과 Block(2006)은 30년 종단연구를 통해, 유아기를 거쳐 청소년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자기통제와 자아탄력성 수준이 일관적이게 나타남을 보여줌으로서, 자아탄력성은 특정 상황에서만 나타나거나 일시적인 행동이 아닌 한 개인의 일반화되고 성격화된 특질임을 지지해주었다(박원주, 이기학, 2008).

성격특질로서의 자아탄력성과는 다른 관점에서 정의를 내리기도 하는데 발달정신병리학자들은 개인의 탄력성을 특별한 능력이나 기능으로 정의하면서 시간에도 걸쳐 변화하는 개인의 특성으로 간주한다. Garmezy(1993)

는 개인의 탄력성(resilience)을 높은 위협이나 만성 스트레스, 심각한 외상에도 불구하고 성공적 적응을 이룰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모든 개인에게 존재하며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특징이라고 하였다. 탄력성은 전 생애의 맥락에서 발달적 통합이 일어나는 순간마다 개인과 환경 간 상호작용 맥락에서 시간에 걸쳐 변화하는 특성을 가진다. 즉 지지적인 환경에서 선천적 요인들과 경험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달하는 개인의 능력이나 기능이므로 특별한 능력이기보다는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발달과정으로서의 탄력성 연구는 높은 위협에 처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역경이나 외상적 사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공적으로 적응하는지에 중점을 두었다(장휘숙, 2001).

#### 나. 자아탄력적인 학생들의 특징

Block과 Kremen(1996)의 연구에 의하면 탄력적인 아동의 특징은 친구들에게 관대하며 놀랐을 때 평정을 바로 찾고 새롭고 특이한 상황을 다루기를 좋아하며,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활기가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여기며, 행동을 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상당히 강한 성격의 소유자로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분노를 느꼈을 때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신지연, 2004).

Block과 Block(1980)은 종단적인 실험 연구를 통해 자아탄력적인 아동들이 첫째, 스트레스 상황에서 융통성 있고 통합된 수행을 하고, 다양한 문제 해결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둘째, 성격이 안정적이어서 덜 불안해하며 셋째, 자신감이 있으며 넷째, 학교와 사회에 능동적인 참여와 융통성 있는 적응을 보이며 다섯째, 또래 관계에서 적절한 정서표현을 하고 공감적이며 여섯째, 유능하고 영리한 특성을 가진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미네소타 대학의 Sharon(1999)은 자아탄력적인 사람들에게서 몇 가지 특성이 나타난다고 발표하였다. 첫째, 자아탄력적인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들(Positive People)이다. 삶을 도전적, 역동적이고 기회로 가득한 것으로 보는 능력을 개발하고,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위험이나 위협요소들에도 감사하고 압도되지 않는다. 그들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스트레스가 삶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구분한다. 둘째, 자아탄력적인 사람들은 목표에 집중하는 사람들(Focused People)이다. 지향하는 목표를 향해서 집중하기로 마음을 결정함으로써 그 가운데 일어나는 방해물이나 장애들에 휩싸이지 않도록 한다.

셋째, 자아탄력적인 사람들은 유연한 사람들(Being Flexible People)이다. 불확실성을 만났을 때 다른 대안들을 모색할 수 있도록 열려 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깨닫고 있으며 언제 내적인 혹은 외적인 한계를 수용해야 할지도 알고 있다. 넷째, 자아탄력적인 사람들은 상황을 재구성하는 사람들(Organized People)이다. 모호성을 관리하는데 구조화된 접근을 꾸준히 개발한다. 그들은 사전에 미리 구조를 확립해 두지만 변화가 일어나는 중 필요하면 재구성한다. 그들은 언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다. 다섯째, 자아탄력적인 사람들은 혁신적인 사람들(Proactive People)이다. 변화에 저항하기 보다는 변화와 더불어 일한다. 그들은 차후 그 비슷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변화를 경험하는 중에 배워야 할 교훈들을 끄집어내고, 또한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재구성해서 창조적으로 자원들을 활용한다.

구형모(2000)는 자아탄력성에 따른 성격 유형들 간의 성격특질에 관한 연구에서 자아탄력적인 집단이 외향적이고 친화적이고 성실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자신의 경험에 대해 개방적인 유형이라고 말하고 있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새롭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융통성 있고 효율적

으로 적응하고 과제 해결을 위해 충동통제를 잘 조절하는 등의 행동 특징을 보인다. 이들은 지능 지수가 가장 높고 학교에서의 수행이 우수하며 정신 병리 수준이 낮았다. 또한 그들의 언어 표현력이 뛰어나고 똑똑하고 자신감이 넘쳤으며 자기 주장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허지연, 2004).

자아탄력적인 학생들은 가족 또는 타인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성격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활동적이고 환기적인 접근을 하고 감정적으로 어려운 경험을 잘 헤쳐 나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고통이나 괴로운 상황에서도 사람의 경험을 구조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이 있고 유아 때부터 계속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관심을 얻는 능력이 있다. 또한 삶의 의미에서 긍정적인 신념을 유지하는 강한 능력이 있다고 하였다(권지은, 2003).

#### 다. 자아탄력성의 하위 요인

일반적으로 자아탄력성의 하위 요인은 5가지 구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행동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박은희, 1997; 임상희, 2006).

(1) **대인관계** : 친구의 말을 존중해 주고 친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도와주고 친구가 고민하면 내 일처럼 함께 고민하고 친구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 주는 능력

(2) **활력성** : 친구들을 보면 상냥하게 말을 걸고 우울할 때보다는 즐거울 때가 많으며 일이 있을 때 앞장서서 하는 능력

(3) **감정통제** : 일이 뜻대로 안될 때 신경질을 내고, 화가 나면 오랫동안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등과 같은 고통이나 괴로운 상황에서도 그들의 경험을 구조적으로 인식하는 능력

(4) 호기심 : 새로운 반 친구가 생기면 그 친구에게 말을 걸고, 궁금한 것이 많고 새로운 것을 보면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능력

(5) 낙관성 : 어떤 일이 생겨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친구의 나쁜 점보다는 좋은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무슨 일이든 잘못되어도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능력

### 3. 진로태도성숙(Career Attitude Maturity)

#### 가. 진로성숙의 개념

Super(1955)는 진로성숙이란 ‘탐색기에서 쇠퇴기에 이르는 직업 발달의 연속선상에서 개인이 도달한 위치’라고 정의하였으며, 진로성숙이 일어나는 5가지 차원인 진로계획, 직업탐색, 의사결정, 직업세계에 대한 지식, 선호하는 직업군에 대한 지식, 선호하는 직업군에 대한 지식에서의 상대적인 위치가 개인의 진로성숙 정도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Crites(1961)는 진로성숙을 진로선택 과정에 나타나는 인지적·정의적 특성의 동일 연령층에서의 상대적 위치로서 보다 일관되고 확실하며 현실적인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고, Hoyt(1977)는 개인이 자아와 직업세계를 잘 이해하여 이 둘을 현명하게 통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준비의 정도가 곧 진로성숙이며 이때 이것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준거는 개인의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하였다(박순희, 2000, 재인용).

장석민 외(1990)는 진로성숙을 발달적 개념이면서 다음 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 정도 개념으로 통합하고, 자아의 이해와 일과 직업 세계의 이해를 기초로 하여 자기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동일 연

령이나 발달 단계에 있는 집단의 발달과업 수행 정도에서 차지할 개인의 상대적인 위치로 정의하였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1)은 진로성숙을 청소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의적 태도 및 인지적 능력과 자신의 결정을 실행하는 정도로 보았다.

이상에서 살핀 진로성숙에 대한 여러 개념을 종합해 보면 진로태도성숙이란 자신과 직업 세계의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연령이나 발달 단계에 있는 집단의 발달과업 수행 정도가 차지하는 개인의 상대적 위치라고 할 수 있다. 즉, 개인이 진로 선택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 나. 진로발달 이론(Development Theory)

Ginzberg 등의 이론의 핵심은 인간의 신체와 정신이 발달하는 것처럼 직업에 대한 지식, 태도, 기능도 어려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일련의 단계를 거치면서 발달한다는 것이다. 첫째, 환상기(fantasy period : 11세 전)는 직업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현실 여건, 능력과 가능성 및 시간 개념이 무시되고, 자신의 충동이나 욕구가 자의적으로 직업 선택으로 전환된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잠정기(tentative period : 11-17세)는 직업 선택에 있어 흥미, 능력, 가치와 같은 주관적인 요소가 고려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를 고려할 때 현실적인 요인들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통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있어 선택은 잠정적이다.

마지막으로 현실기(realistic period : 18세-성인 초기)는 개인적인 요인(흥미, 능력, 가치 등)과 현실적인 요인(기회와 환경적 제약 등) 간의 타협을 통하여 현실적인 직업 선택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생물학적 요인이

학생들이 잠정기를 어떻게 거쳐가느냐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과는 달리 현실기에서는 이러한 요인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이희영, 2003).

Super의 이론은 Ginzberg의 직업 발달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된 진로발달이론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이론으로 이론보다는 접근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며, Super의 직업 발달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기(출생-14세)는 가정과 학교에서 주위 인물들과의 동일시를 통해 자아 개념을 발달시켜 나가는 시기로, 초기에는 욕구와 환상이 지배적이나 차차 사회적 흥미와 능력을 중시하게 된다.

둘째, 탐색기(15-24세)는 자신의 욕구, 흥미, 능력, 가치, 직업기회 등을 고려하며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잠정적으로 선택해 보는 시기이다.

셋째, 확립기(25-44세)는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를 발견하고 생활의 터전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넷째, 유지기(45-65세)는 직업세계에서 확고한 위치가 확립되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기로 안정된 상태 속에서 살아간다.

다섯째, 쇠퇴기(65세 이후)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기능이 쇠퇴함에 따라 직업세계에서 은퇴하게 되며, 새로운 역할이나 활동을 갖게 된다(장석민 외, 1990).

Tiedeman과 O'hara의 이론 역시 직업발달의 단계를 몇 개로 구분하고 각 단계의 특징을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Super의 이론과 유사한 일면이 있다. 그러나 Super가 각 발달 단계에 해당하는 연령을 고정시키고 있는 반면에, Tiedeman과 O'hara는 직업발달 단계는 연령과 관계없이 문제의 성질에 의해 좌우되며 평생 동안 여러 번 반복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직업 발달을 직업 정체감을 형성해 가는 계속적 과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직업 자아정체감은 의사결정을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성숙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은 성장함에 따라 학교나 직업의 선택, 생애 목

적의 설정 등 다양한 사항에 걸쳐 결정을 내려야 할 국면에 놓이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내려 보는 것이 직업적 자아의 확립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즉 진로발달이란 개인의 실체, 다른 말로 해서 자아개념을 직업적 용어로 정의하는 연속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안세영, 2008, 재인용).

#### 다. 진로성숙도와 관련된 변인

진로성숙도에 관련된 변인들은 개인 특성에 관련된 변인으로써 성별, 연령, 학업성취도 등을 들 수 있고, 환경적 변인으로서 사회경제적 지위, 거주지역 등을 들 수 있다. 그밖에 심리적 변인으로서 자아개념, 직업 가치, 내외통제성 등을 들 수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

성별과 진로성숙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그 결과가 다양하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에 따른 진로성숙의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청소년의 경우 대체로 여학생의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강호경, 2003; 이기학, 1997), 이것은 진로선택 문제에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직업에 대해 보다 계획적이며 현실적인 태도를 보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최근의 연구들 중에는 남학생의 진로성숙도가 여학생보다 높다는 결과(정종화, 2002)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도 있었다(서우석, 1994).

진로성숙도와 학년과 연령의 관계를 살펴보면, 연령보다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현실적인 직업 선택 및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옥(1989)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관련 변인을 연구한 결과 학년이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통찰력이 늘고 직업 정보에 많이 접하게 되며 문제 해결 능력이 커진다고 하였다. 김용완(1991)의 연구결과에

도 학년이 높아질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학년에 따른 진로성숙도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태도검사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학년과 타당성, 독립성, 적극성의 태도영역은 정적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학년이 높아질수록 현실적인 직업선택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므로 연령 보다는 학년이 진로성숙의 중요한 지표임을 시사해 주는 결과라 하였다.

Crites(1978)에 의하면, 직업교육 선택학생(전문계 고등학생)과 대학 입학교육 선택 학생(일반계 고등학생)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데,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가 전문계 고등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교 특성에 관한 선행 연구는 일관되게 보고되지 않고 있는데 대체로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가 전문계 고등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송희, 2004; 이기학, 1997). 이는 직업교육 선택 학생이 대학 입학교육 선택 학생보다 낮은 성취기회로 인하여 자신의 진로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되어 나타나는 것이다(이기학, 1997). 그러나 학교특성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도 있다(조장희, 2002).

학업성취도와 진로성숙도의 관계는 연구 대상에 따라 서로 불일치하는 연구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김필연(1991)은 학업성적과 진로성숙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유의미한 차를 보여주었지만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에 김현옥(1989)의 연구에 의하면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진로성숙도와 기타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아개념, 가정환경, 적성, 직업가치, 지능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개념은 자기에 관계되는 정보의 전달과정과 같은 조건하에서 나타나는 자신에 대한 이미지이다. Greenhaus(1971)의 연구에 의하면 자아개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인지적 균형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고,

자아개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욕구와 무관한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전체적인 균형이 이루어진다.

위에서 살펴본 선행 연구를 통해 볼 때 관련 변인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는 자아개념, 직업 선택 등 자기 자신과 관련된 요소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진로성숙도는 학교 생활의 우수성, 학년의 증가, 대학 입학교육 대상(일반계) 학생, 여학생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진로성숙도가 학업성취도, 학년, 계열, 성별 그리고 가정환경과 지능 등 개인의 환경적·개인적 요소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진로태도성숙의 하위 요인

이기학(1997)은 진로 선택 과정을 단일하고 일시적인 사건으로 보는 특질-요인 이론과 전 생애 발달적 입장에서 보는 발달 이론의 통합을 시도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기학이 진로태도성숙을 설명하는 결정성, 준비성, 독립성, 목적성, 확신성 등 다섯 가지 구인을 설정하여 사용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결정성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실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신이 선택하려고 의도하는 진로 및 직업이 어느 정도 확실히 정해져 있는가를 의미한다. 결정성의 정도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방향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결정되어 있어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이며, 결정성의 정도가 낮은 사람은 자신의 진로 문제에 대해 어떠한 것도 결정된 사항이 없어 혼란을 경험하는 사람이다.

## (2) 준비성

진로 결정에 필요한 사전 이해, 준비 및 계획 정도, 그리고 직업 및 진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현명한 진로 선택에 필요한 진로 정보 수집 능력, 의사 결정 능력의 수준을 나타내는 차원이다. 준비성 정도가 높은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능력이 많은 사람이며, 준비성 정도가 낮은 사람은 진로선택과정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진로에 대한 관심 자체가 적은 사람이다.

## (3) 독립성

진로 선택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신의 진로 문제를 자신이 주체적으로 결정하는가 아니면 타인에게 의존하여 결정하는가의 태도를 측정하는 차원이다. 독립성 정도가 높은 사람은 진로 선택 및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는 스스로의 의견 및 결정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주체성이 높은 사람이며, 독립성 정도가 낮은 사람은 자신의 진로 선택 능력에 자신감이 부족하여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주위 사람의 의견 및 평가에 의존하는 사람이다.

## (4) 목적성

개인의 진로를 선택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차원으로 욕구와 현실에 타협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즉 진로 선택 시 경제적인 보상, 승진 기회, 장래 전망 등과 같은 현실적인 요소보다는 일을 통한 자기 개발, 대인 관계 등과 같은 측면을 선호하는 정도를 알아 볼 수 있다.

목적성의 정도가 높은 사람은 현실적인 욕구보다는 자아개발, 타인 및 사회에 봉사 정도를 더욱 선호하는 사람으로서 현실과 사회적인 수용가능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며, 목적성의 정도가 낮은 사람은 사회 봉사

및 자아개발 보다는 현실적인 욕구를 더 중시하여 일의 의미를 경제적 보상 등과 같은 가치에 더 중점을 두는 사람이다.

#### (5) 확신성

자신의 진로 선택 문제에 관해 어느 정도 믿음과 확신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 앞으로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적 믿음과 확신 정도를 측정하는 차원이다.

확신성 정도가 높은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 안정감을 느끼며 미래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높은 확신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확신성 정도가 낮은 사람은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는 진로에 대해 자신감이 부족하고 자신이 앞으로 갖고자 하는 직업세계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심을 하는 사람이다.

#### 마. 진로태도성숙과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에 속한 청소년들은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며 자아 정체감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청소년들은 심각한 생활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경험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상 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건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장동주, 2010).

이러한 스트레스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나 스트레스 그 자체 보다는 개인이 당면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지각하고 대처하는지가 더 중요하다(Aldwin & Revenson, 1987). 같은 수준의 스트레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적응 능력을 상실하고 역경에 좌절하여 부적응적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스트레스 완충모델(stress buffering model)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모델에 의하면 스트레스로 인한 부적응의 강도는 내외통제성,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등의 인적 자원과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 사회적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와 같은 환경적 자원의 다양한 완충요인에 의해 감소될 수 있다(Gore & Eckenrode, 1994). 특히 스트레스 완충요인 중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 지각 수준을 경감시키고 스트레스로 인한 갈등 및 긴장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에 잘 대처하도록 돕고, 위험 상황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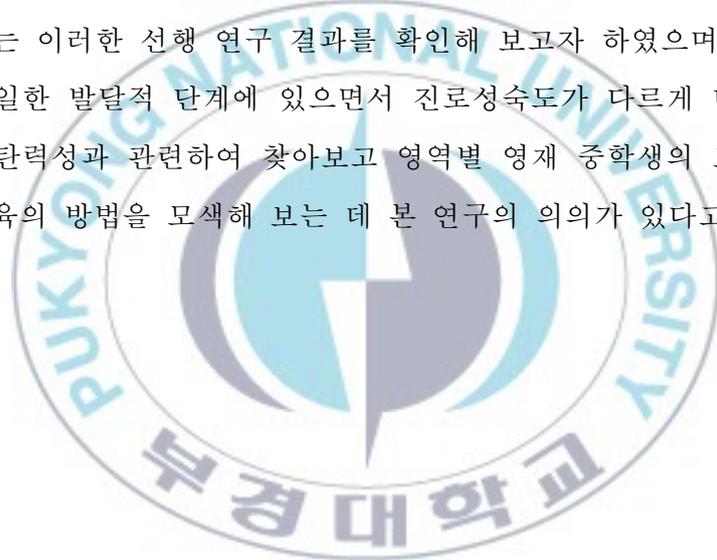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성향이 높고,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고 명랑할수록, 익숙한 것만 고집하는 성향이 낮을수록, 가족이 기능을 원활히 할수록, 담임교사와 친한 친구의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개인적 요인과 가족적 요인 뿐 아니라 사회적 요인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정지영·임정하, 2011).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지각 수준과 진로성숙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회적 지지 지각 수준과 관련되어 있으며, 자신의 중요한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해야 하는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중요한 적응 기제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최경자, 2007). 또한 오석구(2005)는 개인의 진로에 대해 심리적 구조 즉 가치관, 자아개념, 직업관, 진학관 등을 포함하는 의식 체계인 진로 의식이 높을수록 적응유연성(resilience) 즉 자아탄력성이 높다고 하여 자아탄력성과 진로성숙의 상관성이 있음을 시사해 주었다.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진로성숙도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안세영(2008)의 연구와 전문계 고등학생과 인문계 고등학생 모두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이 진로태도성숙도가 높고,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이 학교생활적응도도 높게 나타났다는 이해숙(2008)의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Block(1980)에 의하면 탄력적인 아동은 자율성, 독립성,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는데, 독립성은 진로성숙의 구성요인으로 진로성숙과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자아탄력성의 요인들과 진로성숙도의 요인들이 서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진로성숙도도 높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선행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스트레스의 영향을 조절하여 그 영향을 완충하거나 적응을 도와주는 보호요인으로서의 자아탄력성이 영재 중학생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으며, 같은 학년이라는 동일한 발달적 단계에 있으면서 진로성숙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를 자아탄력성과 관련하여 찾아보고 영역별 영재 중학생의 보다 효과적인 진로교육의 방법을 모색해 보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2011학년도 B광역시교육청 산하 영재교육원에서 영재 교육을 받고 있는 중학교 영재교육 학생들 30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영재교육원의 교육 대상자는 다단계 관별 절차에 의해 선발된다. 이들은 1단계 학교장 추천을 통해 서류 접수를 하고, 2단계 추천자들을 대상으로 영역별 지적능력, 사고력, 창의력, 문제해결력 등이 포함된 학문적성검사, 3단계 구술 심층 면접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1학년 영재 중학생이 148명, 3학년 영재 중학생이 157명이었고, 영재 영역별로 구분해 보면 언어영재 69명, 수학영재 70명, 과학영재 80명, 정보영재 86명으로 총 305명이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 5>와 같다.

<표 5>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영역	언어	69	22.6
	수학	70	23.0
	과학	80	26.2
	정보	86	28.2
학년	1학년	148	48.5
	3학년	157	51.5
성별	남	190	62.3
	여	115	37.7

	학년		전체
	1학년	3학년	
남	87(45.8%)	103(54.2%)	190(100.0%)
여	61(53.0%)	54(47.0%)	115(100.0%)
전체	148(48.5%)	157(51.5%)	305(100.0%)
언어	36(52.2%)	33(47.8%)	69(100.0%)
수학	40(57.1%)	30(42.9%)	70(100.0%)
과학	33(41.3%)	47(58.7%)	80(100.0%)
정보	40(46.5%)	46(53.5%)	86(100.0%)
전체	149(48.9%)	156(51.1%)	305(100.0%)

##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 도구는 자아탄력성, 진로태도성숙도 척도로 다음과 같은 설문지로 구성하였다.

### 가. 자아탄력성 척도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척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Block과 Kremen(1996)의 자아탄력성 척도와 O'connell-Higgins(1983)의 자아탄력적인 아동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박은희(1996)가 개발한 설문지를 토대로 송혜리(2009)가 수정한 자아탄력성 척도 개정본을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개의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40문항으로 본 연구에서는 5점 척도로(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5개의 하위 영역은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이 이에 해당한다.

송혜리(2009)가 보고한 자아탄력성 전체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86이었고, 하위척도별 신뢰도는 대인관계 .70, 활력성 .71, 감정통제 .60, 호기심 .64, 낙관성 .70이었다. 자아탄력성의 문항 구성 및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는 아래의 <표 6>과 같다. 본 연구 결과에 나타난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중에서 감정통제는 Nunnally(1978) 제시하는 기본 연구를 위한 최소한의 신뢰도 기준인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검사 도구의 신뢰도에 약간의 제한점이 있음을 밝혀둔다.

<표 6> 자아탄력성 측정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척도	문항구성	문항수	Cronbach's α
대인관계	1, 6, 11, 16, 21, 26, <b>31</b> , 36	8	.79
활력성	2, 7, 12, 17, 22, 27, 32, <b>37</b>	8	.78
감정통제	(3), (8), 13, 18, ( <b>23</b> ), ( <b>28</b> ), 33, 38	4	.61
호기심	4, 9, 14, 19, 24, 29, 34, 39	8	.73
낙관성	5, 10, 15, 20, <b>25</b> , <b>30</b> , <b>35</b> , <b>40</b>	8	.73
전체		36	.91

\* 진하게 표시된 문항이 역 채점 문항임.

\* ( )은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제거한 문항임.

#### 나. 진로태도성숙 척도

본 연구는 진로와 관련된 성숙 척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기학(1997)이 개발한 진로태도성숙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개 하위영역 47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요인 분석 결과 나타난 5가지 하위영역은 다음과 같다.

선호하는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선택한 진로에 대한 결정 정도가 얼마나 확고한가 하는 정도를 알아보는 결정성, 진로 결정에 필요한 사전 이해와 준비 정도 및 계획과 진로에 대한 관심 및 진로 선택에 필요한 정보수집 능력을 알아보는 준비성, 자신의 진로 문제를 주체적으로 결정하는가 아니면 타인에게 의존하는가를 알아보는 독립성, 진로선택을 통한 가치 추구 및 내재적 욕구와 현실적 타협 정도를 알아보는 목적성 그리고 진로선택문제에 대한 확신 정도와 성공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알아보는 확신성으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태도성숙 척도의 채점방식은 5단계 평정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로 되어 있다. 이 중 28개의 역문항은 역산하여 합산하였고 총점이 47점에서 235점까지 나타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진로태도성숙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90으로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신뢰성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의 구성과 신뢰도는 <표 7>과 같다.

<표 7> 진로태도성숙도 측정 척도의 문항 구성과 신뢰도

하위척도	문항구성	문항수	Cronbach’s α
결정성	1, <b>6</b> , 11, <b>16</b> , <b>21</b> , <b>26</b> , 31, 36, <b>41</b> , <b>45</b>	10	.85
준비성	4, 9, <b>14</b> , 19, (24), 29, 34, (39), 43, 47	8	.79
독립성	<b>5</b> , <b>10</b> , <b>15</b> , 20, <b>25</b> , 30, 35, 40, <b>44</b>	9	.78
목적성	<b>2</b> , <b>7</b> , <b>12</b> , <b>17</b> , <b>22</b> , <b>27</b> , <b>32</b> , <b>37</b>	8	.82
확신성	<b>3</b> , <b>8</b> , <b>13</b> , <b>18</b> , 23, <b>28</b> , 33, <b>38</b> , <b>42</b> , <b>46</b>	10	.64
전체		45	.90

\* 진하게 표시된 문항이 역 채점 문항임.

\* ( )은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제거한 문항임.

###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영재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도에 관한 연구로써, 영재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도가 영재의 학년별, 영역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보고 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영역별 영재 중학생들을 조사하기 위하여 2011년 5월에 설문 대상 영재교육원 영재교육 담당자의 협조를 받았으며, 설문 조사는 영재교육원의 여름 방학 집중 수업 기간인 7월과 8월 사이에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수락한 영재교육원을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담당 교사에게 유의사항과 설문지를 전달하여 실시하거나 연구자가 직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검사 시간은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 4. 자료 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 활용된 모든 데이터는 통계 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처리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 검사를 위하여 척도별 Cronbach  $\alpha$ 를 산출하였다.

셋째, 연구 대상자의 자아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도가 학년별, 영역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변량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영재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영재 중학생 자아탄력성의 학년별, 영역별 차이

#### 가. 영재 중학생의 학년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

영재 중학생의 학년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를 다변량분산분석한 결과는 <표 8>, <표 9>와 같다.

<표 8> 학년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

	1학년(N=148)		3학년(N=157)		전체(N=305)	
	M	SD	M	SD	M	SD
대인관계	3.69	0.59	3.75	0.60	3.72	0.59
활력성	3.69	0.64	3.67	0.64	3.68	0.64
감정통제	3.33	0.75	3.57	0.66	3.45	0.71
호기심	3.59	0.60	3.66	0.61	3.63	0.61
낙관성	3.55	0.62	3.49	0.66	3.52	0.64
자아탄력성전체	3.57	0.50	3.63	0.51	3.60	0.51

<표 9> 학년에 따른 자아탄력성 하위요인의 다변량분산분석

하위요인	다변량			단변량		
	Wilks' $\lambda$	F	df	MS	F	df
대인관계				0.24	0.67	1
활력성				0.02	0.04	1
감정통제	0.96	2.69**	5	4.51	9.18**	1
호기심				0.34	0.94	1
낙관성				0.25	0.62	1

\*\*p<.01

위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년에 따른 자아탄력성에 관한 다변량분산 분석의 결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Wilks'  $\lambda = 0.96$ ,  $F=2.69$ ,  $p<.01$ ). 단변량 분석 결과에 의하면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감정통제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정통제에서 3학년( $M=3.57$ ,  $SD=0.66$ )이 1학년( $M=3.33$ ,  $SD=0.75$ )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영재 중학생은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감정통제, 즉 학년이 높아질수록 고통이나 괴로운 상황에서도 그들의 경험을 구조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나. 영재 중학생의 영역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

영재 중학생의 영역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를 다변량분산분석한 결과는 <표 10>, <표 11>과 같다.

<표 10> 영역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

	언어(N=69)		수학(N=70)		과학(N=80)		정보(N=86)		전체(N=305)	
	M	SD	M	SD	M	SD	M	SD	M	SD
대인관계	3.74	0.62	3.82	0.58	3.72	0.61	3.62	0.56	3.72	0.59
활력성	3.68	0.63	3.86	0.67	3.71	0.60	3.51	0.62	3.68	0.64
감정통제	3.52	0.70	3.58	0.72	3.38	0.74	3.36	0.67	3.45	0.71
호기심	3.52	0.61	3.70	0.62	3.76	0.59	3.54	0.58	3.63	0.61
낙관성	3.44	0.58	3.71	0.64	3.57	0.65	3.39	0.65	3.52	0.64
자아탄력성전체	3.58	0.49	3.73	0.53	3.63	0.50	3.48	0.49	3.60	0.51

<표 11> 영역에 따른 자아탄력성 하위요인의 다변량분산분석

하위요인	다변량			단변량		
	Wilks' $\lambda$	F	df	MS	F	df
대인관계				1.66	1.57	3
활력성				4.72	3.99**	3
감정통제	0.89	2.32**	15	2.67	1.78	3
호기심				3.11	2.89*	3
낙관성				4.63	3.87*	3

\*p<.05, \*\*p<.01

위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영역에 따른 자아탄력성에 관한 다변량분산 분석의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Wilks'  $\lambda$  = 0.89, F=2.47, p<0.01). 단변량 분석 결과에 의하면 자아탄력성의 하위 영역 중 활력성, 호기심, 낙관성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e의 사후 검증결과, 활력성에서 수학영재(M=3.86, SD=0.67)가 정보영재(M=3.51, SD=0.62)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고, 호기심에서 과학영재(M=3.76, SD=0.59)가 언어영재(M=3.52, SD=0.61), 정보영재(M=3.54, SD=0.58)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낙관성에서 수학영재(M=3.71, SD=0.64)가 정보영재(M=3.39, SD=0.65), 언어영재(M=3.44, SD=0.58)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수학영재 학생이 보다 즐겁게 생활하고 일이 있을 때 앞장서서 하는 능력과 친구의 좋은 점을 발견하려 노력하고 무슨 일이 잘못 되어도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과학영재 학생이 보다 궁금한 것이 많고 새로운 것을 보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영재 중학생 진로태도성숙도의 학년별, 영역별 차이

### 가. 영재 중학생의 학년에 따른 진로태도성숙도의 차이

영재 중학생의 학년에 따른 진로태도성숙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를 다변량분산분석한 결과는 <표 12>, <표 13>과 같다.

<표 12> 학년에 따른 진로태도성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1학년(N=148)		3학년(N=157)		전체(N=305)	
	M	SD	M	SD	M	SD
결정성	3.53	0.79	3.23	0.71	3.37	0.76
준비성	3.69	0.64	3.77	0.66	3.73	0.65
독립성	3.83	0.63	3.57	0.62	3.69	0.64
목적성	3.34	0.72	3.08	0.75	3.21	0.75
확신성	3.10	0.50	2.96	0.54	3.03	0.53
진로성숙도전체	3.50	0.46	3.32	0.46	3.41	0.47

<표 13> 학년에 따른 진로태도성숙도 하위요인의 다변량분산분석

하위요인	다변량			단변량		
	Wilks' $\lambda$	F	df	MS	F	df
결정성				7.050	12.91***	1
준비성				0.500	1.19	1
독립성	0.92	5.31***	5	5.225	13.38***	1
목적성				5.159	9.50**	1
확신성				1.549	5.70*	1

\*p<.05, \*\*p<.01, \*\*\*p<.001

위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년에 따른 진로태도성숙도에 관한 다변량 분산분석의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Wilks'  $\lambda = 0.92$ ,  $F=5.31$ ,  $p<0.001$ ). 단변량 분석 결과에 의하면 결정성, 독립성, 목적성, 확산성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정성에서 1학년( $M=3.53$ ,  $SD=0.78$ )이 3학년( $M=3.23$ ,  $SD=0.71$ )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고, 독립성에서 1학년( $M=3.83$ ,  $SD=0.63$ )이 3학년( $M=3.57$ ,  $SD=0.62$ )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고, 목적성에서 1학년( $M=3.34$ ,  $SD=0.72$ )이 3학년( $M=3.08$ ,  $SD=0.75$ )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고, 확산성에서는 1학년( $M=3.10$ ,  $SD=0.50$ )이 3학년( $M=2.96$ ,  $SD=0.54$ )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학년에 따른 진로태도성숙도에 관한 분석 결과에서 볼 때, 대부분 진로태도성숙도의 하위요인에서 3학년 영재 학생들의 진로태도성숙도가 1학년 학생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영재 중학생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더 심도 있는 진로교육이 필요함을 의미함을 나타낸다.

#### 나. 영재 중학생의 영역에 따른 진로태도성숙도의 차이

영재 중학생의 영역에 따른 진로태도성숙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를 다변량분산분석한 결과는 <표 14>, <표 15>와 같다.

<표 14> 영역에 따른 진로태도성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언어(N=69)		수학(N=70)		과학(N=80)		정보(N=86)		전체(N=305)	
	M	SD	M	SD	M	SD	M	SD	M	SD
결정성	3.28	0.78	3.46	0.71	3.31	0.79	3.44	0.76	3.37	0.76
준비성	3.86	0.67	3.72	0.71	3.74	0.61	3.63	0.60	3.73	0.65
독립성	3.68	0.58	3.74	0.68	3.66	0.69	3.71	0.61	3.69	0.64
목적성	3.26	0.70	3.28	0.79	3.13	0.85	3.18	0.65	3.21	0.75
확신성	2.96	0.48	3.15	0.52	3.03	0.57	2.98	0.52	3.03	0.53
진로성숙도전체	3.41	0.42	3.47	0.47	3.38	0.55	3.39	0.43	3.41	0.47

<표 15> 영역에 따른 진로태도성숙도 하위요인의 다변량분산분석

하위요인	다변량			단변량		
	Wilks' $\lambda$	F	df	MS	F	df
결정성				1.82	1.04	3
준비성				2.10	1.68	3
독립성	0.93	1.40	15	0.33	0.27	3
목적성				1.05	0.63	3
확신성				1.43	1.75	3

위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영역에 따른 진로태도성숙도에 관한 다변량 분산분석의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Wilks'  $\lambda$  = 0.94, F=1.30,  $p>0.05$ ). 단변량 분석 결과에 의하면 결정성, 준비성, 독립성, 목적성, 확신성에서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역에 따른 진로태도성숙도 하위요인, 즉 결정성, 준비성, 독립성, 목적성, 확신성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영재 중학생의 진로교육은 영재의 영역별 구분 없이 영재의 일반적인 진로성숙도에 맞게 진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 3. 영재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도와의 관계

영재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도의 상관 분석 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 자아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도와의 상관분석 결과

	대인 관계	활력성	감정 통제	호기심	낙관성	자아 탄력성 전체	결정성	준비성	독립성	목적성	확신성	진로태 도성숙 도전체
대인관계	1											
활력성	.72***	1										
감정통제	.58***	.42***	1									
호기심	.58***	.62***	.51***	1								
낙관성	.60***	.63***	.34***	.43***	1							
자아탄력성 전체	.87***	.85***	.73***	.79***	.75***	1						
결정성	.24***	.30***	.06	.13*	.39***	.28***	1					
준비성	.51***	.46***	.35***	.41***	.27***	.50***	.20***	1				
독립성	.34***	.32***	.01	.18**	.45***	.32***	.50***	.37***	1			
목적성	.10	.10	-.12*	-.05	.30***	.08	.34***	.03	.57***	1		
확신성	.24***	.33***	-.04	.03	.49***	.26***	.57***	.06	.53***	.50***	1	
진로태도 성숙도 전체	.39***	.47***	.08	.20**	.53***	.40***	.76***	.47***	.84***	.71***	.74***	1

\*p<.05, \*\*p<.01, \*\*\*p<.001

위의 <표 16>은 중학교 영재교육 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도와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이다. 자아탄력성 전체와 진로태도성숙도와의

관계를 보면 자아탄력성 전체는 진로태도성숙도 하위영역과 진로태도성숙도 전체와는 진로태도성숙도 하위영역 중 목적성을 제외하고 모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자아 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도 목적성과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자아 탄력성 전체가 증가할수록 진로성숙도 결정성( $r=0.28, p<.001$ ), 준비성( $r=0.50, p<.001$ ), 독립성( $r=0.32, p<.001$ ), 확신성( $r=0.26, p<.001$ ), 진로성숙도 전체( $r=0.40, p<.001$ )는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로태도성숙도 전체와 자아탄력성과의 관계를 보면 진로태도성숙도 전체는 자아탄력성 하위영역과 자아탄력성 전체와는 자아탄력성 하위영역 중 감정통제를 제외하고 모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진로태도성숙도 전체와 자아탄력성 감정통제와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진로태도성숙도 전체가 증가할수록 자아탄력성 대인관계( $r=0.39, p<.001$ ), 활력성( $r=0.42, p<.001$ ), 호기심( $r=0.20, p<.01$ ), 낙관성( $r=0.53, p<.001$ ), 자아탄력성 전체( $r=0.40, p<.001$ )는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영재 중학생의 자아탄력성은 진로태도성숙도의 하위 요인 중 목적성을 제외한 결정성, 준비성, 독립성, 확신성에서 정적 상관을 보여 정비례 관계라 할 수 있고, 영재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도는 자아탄력성의 하위 요인 중 감정통제를 제외한 대인관계, 활력성, 호기심, 낙관성에서 정적 상관을 보여 정비례 관계라 할 수 있다.

## V. 논의 및 결론

### 1. 요약

본 연구는 영역별 영재 중학생(언어 영재, 수학 영재, 과학 영재, 정보 영재)의 자아탄력성의 차이, 진로태도성숙도의 차이, 자아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도와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영재 중학생의 자아탄력성은 영재의 학년별, 영역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영재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도는 영재의 학년별, 영역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영재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도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상의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 대상은 B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언어영재교육원, 과학영재교육원, 정보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언어영재 69명, 수학영재 70명, 과학영재 80명, 정보영재 86명으로 총 305명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 검사 및 진로태도성숙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통계 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처리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 검사를 위하여 척도별 Cronbach  $\alpha$ 를 산출하였다.

셋째, 연구 대상자의 자아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도가 학년별, 영역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영재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 중학생 자아탄력성의 학년별 차이를 다변량분산분석한 결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단변량분석 결과에 의하면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감정통제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정통제에서 영재 중학생 3학년이 1학년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둘째, 영재 중학생 자아탄력성의 영역별 차이를 다변량분산분석한 결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단변량분석 결과에 의하면 자아탄력성의 하위영역 중 활력성, 호기심, 낙관성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e의 사후검증결과, 활력성에서 수학영재가 정보영재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고, 호기심에서 과학영재가 언어영재, 정보영재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낙관성에서 수학영재가 정보영재, 언어영재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셋째, 영재 중학생 진로태도성숙도의 학년별 차이를 다변량분산분석한 결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단변량분석 결과에 의하면 결정성, 독립성, 목적성, 확신성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태도성숙도의 하위요인 중 준비성을 제외하고 결정성, 독립성, 목적성, 확신성에서 1학년이 3학년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넷째, 영재 중학생 진로태도성숙도의 영역별 차이를 다변량분산분석한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단변량분석 결과에서도 결정성, 준비성, 독립성, 목적성, 확신성에서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영역에 따른 진로태도성숙도 하위요인, 즉 결정성, 준비성, 독립성, 목적성, 확신성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영재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영재 중학생의 자아탄력성은 진로태도성숙도의 하위 요인 중 목적성을 제외한 결정성, 준비성, 독립성, 확신성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영재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도는 자아탄력성의 하위 요인 중 감정통제를 제외한 대인관계, 활력성, 호기심, 낙관성에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논의

본 연구는 영역별 영재 중학생(언어 영재, 수학 영재, 과학 영재, 정보 영재)의 자아탄력성의 차이, 진로태도성숙도의 차이, 자아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도와의 관계를 알아보는 데 그 연구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영역별 영재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영재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도는 학년별, 영역별로 다소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다. 통계 분석을 통해 드러난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영재 중학생 자아탄력성의 학년별, 영역별 차이

본 연구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영재 중학생 자아탄력성의 학년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결과에 의하면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감정통제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정통제에서 영재 중학생 3학년이 1학년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영재 중학생의 자아탄력성의 차이를 분석한 선행 연구 결과가 거의 없으

므로 직접적인 논의가 어렵기 때문에 영재의 자아 개념과 관련하여 자기효능감의 학년별, 영역별 차이를 분석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정은(2011)은 자기효능감에 대한 학년별 비교 분석에서 수학영재와 일반 학생은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지만 일반학생은 자신감의 하위 영역 중 자기조절 효능감에서 3학년이 1학년 보다 더 높은 성향을 보였다고 했으며, 김명철(2008)도 초·중학생 창의성과 정의적 특성과의 관계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간 자기 효능감의 차이는 자기조절 효능감 요인으로 중학생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일반 학생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학년별 차이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면, 최지현(2008)은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은 성별과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자아탄력성이 높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아탄력성 수준도 높아졌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본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하지만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 보다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활력성, 감정통제, 낙관성에서 초등학생이 고등학생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이지미(2010)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선행 연구의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1학년과 3학년이 동일한 집단의 종단적 비교가 아니라는 점에서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영재 중학생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감정통제, 즉 고통이나 괴로운 상황에서도 그들의 경험을 구조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영재 중학생 자아탄력성의 영역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단변량 분석 결과에 의하면 자아탄력성의 하위 영역 중 활력성, 호기심, 낙관성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e의 사후검증결과, 활력성에서 수학영재가 정보영재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고, 호기심에서 과학영재가 언어영재, 정보영재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낙관성에서 수학영재가 정보영재, 언어영재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김선희 외(2005)의 연구를 살펴보면 자기 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과제난이도 선호에서 수학영재와 과학영재의 차이는 없었던 반면, 영재 학생과 일반 학생들 간에는 차이를 보였는데 영재 학생들이 과제가 어려운 것들 더 선호하고 있었으며, 자기조절 효능감에 있어서는 수학영재가 가장 뛰어났고, 그 다음이 과학영재와 일반 학생 순이었다고 했다. 일반적인 자신감에 있어서는 수학영재와 일반 학생 간에만 차이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고 수학영재는 일반 학생 보다 어려운 것을 선호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자신감이 더 컸으며, 과학영재 보다 자기조절 하는데 있어서 더 효율적이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자기효능감의 과제난이도 선호에서 과학 및 수학영재와 정보영재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과학 및 수학영재가 정보영재 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는 문태형(2011)의 연구도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그 외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자기효능감 차이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정자영(2009)은 수학영재학생 집단의 평균이 일반학급학생 집단 평균 보다 자기효능감의 하위 요인인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 과제난이도 선호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했으며, 박승철(2005)은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즉, 아동의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수행능력 모두 과학 영재 아동이 일반 아동 보다 높았다고 보고했다. 또한 초등정보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자기효능감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비교한 결과, 초등정보 영재학생은 일반학생에 비하여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특히 자기효능감 중 성취효능감에 있어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는 김정아(2005)의

연구 결과도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영재 중학생 자아탄력성의 영역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수학영재 학생이 보다 즐겁게 생활하고 일이 있을 때 앞장서서 하는 능력인 활력성과 친구의 좋은 점을 발견하려 노력하고 무슨 일이 잘 못되어도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능력인 낙관성이 탁월하며, 과학영재 학생이 보다 궁금한 것이 많고 새로운 것을 보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능력인 호기심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영재 중학생의 자아탄력성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서 학년별, 영역별로 그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 나. 영재 중학생 진로태도성숙도의 학년별, 영역별 차이

영재 중학생 진로태도성숙도의 학년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단변량 분석 결과에 의하면 결정성, 독립성, 목적성, 확신성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태도성숙도의 하위요인 중 결정성, 독립성, 목적성, 확신성에서 1학년이 3학년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재 중학생의 진로성숙도가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3학년 영재 중학생들의 진로성숙도가 1학년 영재 중학생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는 황희숙 외(2009)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보편적으로 진로성숙도는 다른 심리적인 구인과 마찬가지로 학년이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발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유순화 외, 2006) 본 연구 결과는 현재 3학년 영재 중학생의 환경적인 요인과 관련하여 살펴보았을 때 진로태도성숙도가 낮게 나타나는 이유를 해석해 볼 수 있다. 3학

년 영재 중학생의 경우, 외고와 과학고 등의 특목고 진학을 앞두고 있는 시기여서 진로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이고 부모의 공부에 대한 기대로 인한 압박감, 영재들의 다재다능함으로 인해 높은 지위의 직업을 얻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해 오히려 1학년 보다 낮은 진로태도성숙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학년에 따른 진로태도성숙도에 관한 분석 결과에서 볼 때, 대부분 진로태도성숙도의 하위요인에서 3학년 영재 학생들의 진로태도성숙도가 1학년 학생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영재 중학생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특히 3학년 영재 중학생의 경우 더 심도 있는 진로교육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한편, 영재 중학생 진로태도성숙도의 영역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단변량 분석 결과에서도 결정성, 독립성, 목적성, 확신성에서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역에 따른 진로태도성숙도 하위요인, 즉 결정성, 준비성, 독립성, 목적성, 확신성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희숙 외(2009)는 영재 중학생의 영역에 따라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정보 영재가 수학, 과학 영재에 비해 진로성숙도가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와는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 외에 영역별 영재의 진로태도성숙도를 비교한 연구를 찾아볼 수가 없어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진로성숙도를 비교한 연구를 살펴보면, 정자영(2009)은 일반학급학생 집단 보다 수학영재학생 집단의 진로태도성숙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했으며, 이유리(2010)는 일반학생이 영재학생 보다 진로태도성숙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여 연구 결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고등학생의 일반계와 전문계 학교특성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안세영

(2008)의 연구와는 계열별로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영재의 영역별로 진로태도성숙도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아 영재 중학생의 진로교육이 영재의 영역별 구분 없이 영재의 일반적인 진로성숙도에 맞게 진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것은 진로의 태도척도에 대한 것으로 향후 영재 중학생 진로태도성숙도의 영역별 차이에 대한 연구에서 진로능력 척도를 함께 사용하여 고찰해보면 영역별 영재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보다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다. 영재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도와의 관계

영재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아탄력성 전체는 진로태도성숙도 하위영역과 진로태도성숙도 전체와는 진로태도성숙도 하위영역 중 목적성을 제외하고 모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자아 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도 목적성과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자아 탄력성 전체가 증가할수록 진로태도성숙도 하위 영역인 결정성, 준비성, 독립성, 확신성과 진로태도성숙도 전체는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로태도성숙도 전체와 자아탄력성과의 관계를 보면 진로태도성숙도 전체는 자아탄력성 하위영역과 자아탄력성 전체와는 자아탄력성 하위영역 중 감정통제를 제외하고 모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진로태도성숙도 전체와 자아탄력성 감정통제와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진로태도성숙도 전체가 증가할수록 자아탄력성 대인관계, 활력성, 호기심, 낙관성, 자아탄력성 전체는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자영(2009)은 수학영재의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하게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수학영재학생 집단의 경우 진로태도성숙의 하위요인 중 확신성이 자기효능감과 정적상관이 가장 높았다고 하였고,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 선택에 대한 자신의 믿음과 확신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영재 중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자아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어 연구 대상을 일반 학생으로 한 연구 결과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오석구(2005)는 초등학교 아동의 진로의식과 적응유연성에 대한 연구에서 개인의 진로에 대해 심리적 구조 즉 가치관, 자아개념, 직업관, 진학관 등을 포함하는 의식 체계인 진로 의식이 높을수록 적응유연성(resilience) 즉 자아탄력성이 높다고 하여 자아탄력성과 진로성숙의 상관이 있음을 시사해 주었다. 자기효능감의 평균이 높은 집단은 진로성숙도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자기효능감에서는 목적성을 제외한 결정성, 준비성, 독립성, 확신성에서 높게 나타났다는 김미숙(2008)의 연구도 본 연구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지각 수준과 진로성숙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회적 지지 지각 수준과 관련되어 있으며, 자신의 중요한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해야 하는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중요한 적응 기제로 기능하고 있다고 한 최경자(2007)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진로성숙도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안세영(2008)의 연구와 전문계 고등학생과 인문계 고등학생 모두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이 진로태도성숙도가 높고,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이 학교생활적응도도 높게 나타났다는 이혜숙(2008)의 연구 결과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는 모두 자기효능감에 관련된 연구이거나 일반 학생을 비교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로써 영역별 영재 중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자아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도와의 관계를 고찰해 본 것은 선행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시도하였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 영재 중학생의 자아탄력성 전체와 진로태도성숙도 하위영역의 상관관계는 그 하위영역 중 목적성을, 진로태도성숙도 전체와 자아탄력성 하위영역의 상관관계는 그 하위영역 중 감정통제를 제외한 모든 하위영역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영재 중학생의 경우 자아탄력성 전체와 진로 태도성숙도의 목적성이 상관을 보이지 않는 것은 영재들은 진로 선택의 문제에 보다 현실적으로 대처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진로태도성숙도 전체와 자아탄력성의 감정통제가 상관을 보이지 않는 것은 영재들의 진로태도성숙이 학년의 증가와 반비례 관계를 보인 연구결과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어 보이며, 진로태도성숙의 하위 요인 중 대인관계, 활력성, 호기심, 낙관성 요인이 더 많은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에 대한 연구는 추후 지속적으로 계속되어,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고찰해 봄으로써 영재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의 하위요인 중 목적성이,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감정통제가 상관을 보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밝힐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 3.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 및 논의를 토대로 연구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 중학생의 자아탄력성은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자

아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감정통제에서 3학년이 1학년에 비하여 높다.

둘째, 영재 중학생의 자아탄력성은 영역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활력성, 호기심, 낙관성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력성에서 수학영재가 정보영재에 비하여 높고, 호기심에서 과학영재가 언어영재, 정보영재에 비하여 높고, 낙관성에서 수학영재가 정보영재, 언어영재에 비하여 높다.

셋째, 영재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도는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결정성, 독립성, 목적성, 확신성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태도성숙도의 하위요인 중 결정성, 독립성, 목적성, 확신성은 1학년이 3학년에 비하여 높다.

넷째, 영재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도는 영역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영역에 따른 진로태도성숙도 하위요인, 즉 결정성, 준비성, 독립성, 목적성, 확신성에서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섯째, 영재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영재 중학생의 자아탄력성은 진로태도성숙의 하위 요인 중 목적성을 제외한 결정성, 준비성, 독립성, 확신성에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영재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도는 자아탄력성의 하위 요인 중 감정통제를 제외한 대인관계, 활력성, 호기심, 낙관성에서 정적 상관을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로 영재 중학생의 학년별, 영역별 자아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도와의 차이와 그 관계를 알 수 있었다. 영재에 대한 연구에 있어 영역별로 영재의 특성을 다루고 있는 연구는 다수 있었으나, 영역별 영재 전체를 대상으로 그 특성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는 드문 편이다. 대부분의 연구가 영재 학생과 일반 학생의 특성을 비교하거나 수학·과학 영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영역별 영재의 자아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도 경향을 고찰해 보기 위한 선행 연구로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또한 일반 학생의 자

아탄력성에 대한 연구와 영재의 진로성숙도를 다루고 있는 연구는 다수 있었으나, 영역별 영재를 대상으로 하여 자아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도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 연구와 비교하여 예측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영재 중학생의 학년별·영역별로 자아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도의 차이와 그 관계를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영재 중학생의 보다 바람직한 진로교육과 상담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B광역시교육청 산하 영재교육원의 영재 중학생 중에서 언어·수학·과학·정보 영재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실시하였으나, 연구 결과를 영재교육 대상 전반으로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더 많은 연구 대상을 확보하여 연구 결과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여러 가지 변인 중 영재의 자기탄력성만을 다루었으나 실제로 다양한 변인들이 상호작용하여 진로태도성숙 수준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가족 관계, 부모의 양육 태도, 가정의 경제 수준 등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므로 차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변인들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변인들 중에서 어떤 변인이 가장 영향력이 큰가를 고찰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영재 중학생의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남녀 인원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 영역별 영재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도를 고찰함에 있어 성별에 의한 차이를 살펴볼 수 없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진로태도성

속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탄력성의 수준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진로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남녀 특성을 고려한 영재 중학생의 진로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넷째, 본 연구에서 영재 중학생의 자아탄력성은 진로태도성숙과 많은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영재 중학생의 자아탄력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그들의 진로태도성숙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영재 중학생의 무한한 잠재력을 계발하고 보다 바람직한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진로태도성숙도가 낮아지는 본 연구 결과에 주목하여 자아탄력성을 비롯한 관련 변인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강승희(2001). 언어영재와 일반아동의 작문에 나타나는 이야기 구조와 언어적 창의성의 발달 및 차이.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호경(2003). 고등학생의 의사결정 유형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향자(1992). 한국대학생의 의사결정 유형과 진로결정 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권지은(2003). 부모 및 또래 애착, 문제해결 방식과 자아탄력성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형모(2000). 자아탄력적 집단의 성격특질. 충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묘(2009). 중학생의 자아개념 및 분리개별화와 진로성숙도간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2008). 정보 영재를 위한 온라인 학습 도구 평가 준거 개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용완(1991).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진(2000).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애착이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김소아(2003). 영재의 선발준거와 진로 특성 요인의 탐색.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송화(2011).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 자아탄력성의 조절과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송희(2004). 고등학생의 배경 변인별 자아분화와 진로성숙도의 관계. 전

- 주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환(1991). 중학생의 진로성숙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충기(1998). 21세기 자녀교육. 교육과학사.
- 김충기(2000).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동문사.
- 김필연(1991). 중등학생의 진로성숙과 사회,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옥(1989).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관련변인과의 상관관계.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홍원, 김명숙, 송상헌(1996). 수학 영재 판별 도구 개발 연구 (I)-기초연구편. 연구보고 CR96-26. 한국교육개발원
- 박성익, 조석희, 김동원, 이지현, 윤여홍, 진석현, 한기순(2003). 영재교육학 원론. 교육과학사.
- 박순희(2000). 중학생의 내외통제성 및 학업성취도와 진로성숙도간의 관계.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선(2007). 영재아동 진로집단프로그램이 영재아동의 진로태도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희(1997). 자아탄력성, 지능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부산광역시 영재교육 기본 계획(2011). 부산광역시교육청.
- 손영완(2006). 초등과학영재교육에 대한 교사·학부모·학생의 인식 연구. 광주교육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희진(2011). 인물탐색중심 진로상담프로그램이 초등영재의 진로성숙도 및 진로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혜리(2009).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경험 및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과의

- 관계.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우석(1994).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 의사결정과 관련 변인.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지연(2004).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순미(2008). 영역별 영재중학생의 뇌 선호 경향 연구.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세영(2008).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석구(2005). 초등학교 아동의 진로 의식과 적응유연성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세균(2002). 컴퓨터영재의 정의와 판별시스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성경·심혜원(2002). 적응 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호요소 탐색. 교육심리연구, 16(4), 189-206.
- 유순화 외(2006). 과학영재 중학생과 일반 중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 상담학연구, 7(2), 399-415.
- 윤여홍(2000). 영재의 심리적 특성과 정서발달을 위한 상담. 한국심리학회지, 19(1), 79-101.
- 윤영수(2006). 중학교 영재교육 학생과 일반학생의 진로성숙도 비교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은순(2006). 영재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비교.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학(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 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호(2009). 영재학생의 진로유형과 진로인식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수현, 최해림(2007).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 자아탄력성, 시험 불안 및 학교적응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9(2), 321-337.
- 이유리(2010). 수학과학 영재 중학생과 일반 중학생의 상위인지전략 및 몰입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비교.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진(2001). 다재다능한 대학생을 위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순규(2011). 초등영재의 자아개념과 인지적 조합요인의 관계.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신동, 이정규, 박춘성(2009). 최신평영재교육학개론. 학지사.
- 이지미(2010). 청소년이 지각한 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태정(2003). 몰입경험이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혜숙(2008).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도 및 학교생활적응도와의 관계.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영(2003). 진로성숙과 상담 : 이론 연구 및 적용. 학지사.
- 임상희(2006).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와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동주(2010). 부모지지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석민(1990). 진로성숙도 검사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서울:한국교육

개발원.

- 전유진(2006). 아동의 독서성향과 진로인식과의 관계 : 초등 과학영재와 일반아동을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자영(2009). 수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 비교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지영, 임정하(2011). 청소년의 기질, 가족 건강성,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3(1), 37-51.
- 조장희(2002).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자(2007).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지현(2008). 정서지능과 자아탄력성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1). 진로성숙도검사개발보고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황희숙, 강승희, 황순영(2009). 영재 중학생의 영역과 학년에 따른 진로 성숙도와 진로의사결정유형의 차이. 한국교육학연구, 15(2), 79-102.
- 허재환(2002). 과학고등학교 학생의 직업관과 진로선택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지연(2004).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또래관계 및 축진적 의사소통 능력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David Palmer 지음/황희숙, 강승희, 윤경미, 윤소정, 류지영 옮김(2009). 지능과 영재교육. 시그마프레스.
- G.A. Davis & S.B. Rimm 저/송인섭, 이신동, 이경화, 최병연, 박숙희 편역(2001). 영재교육의 이론과 방법. 학문사.
- Block, J., & Blo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13, 39-101.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49-361.
- Clark, B.(1992). Growing up gifted: Developing the potential of children at home and at school (4th ed.). New York: Merrill.
- Colangelo, N, & Kelly, K. R.(1983). A study of student, parent, and teacher attitudes toward gifted programs and gifted students, *Gifted Child Quarterly*, 27, 107-110.
- Crites, J. O. (1961). A model for the measurement of vocational matur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8(3), 255-299.
- Feldhusen, J. F(1992). *Talent Identification and Development*.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rdner, H.(1983). *Frames of mind,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 New York: Wiley.
- (1999). *Multiple Intelligence, The theory in practice*. New York: Basic Books.
- Gagne, F. (2000). Understanding the complex choreography of talent development through DMGT-based analysis. In K. A. Heller, F. Monks, R. J. Sternberg, & R. F. Subotnik(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giftedness and talent*. New York: Pergamon.
- Greenhaus, J. H.(1971). An investigation of the role of career salience in vocational behavior.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 209-216
- Holland, J. L., & Holland, J. E.(1977). Vocational indecision: More

- evidence and spec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 404-414.
- Hollingworth, L. S. (1942). *Children above 180 IQ*. New York: Arno Press, reprint of the 1942 edition.
- Kerr, B. A. (1981). *Career education for the gifted and talented*. Columbus, OH: Ohio State University, National Center for Research in Vocational Education.
- Loeb, R. C., & Jay, G.(1987). Self-concept in gifted children: Differential impact in boys and girls. *Gifted Child Quarterly*,31.
- Ludwig, G., & Cullinan, D.(1984). Behavior problems of gifted and nongifted elementary girls and boys. *Gifted Child Quarterly*.
- Nun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2nd ed.)*. New York: McGraw-Hill.
- Pufal-Struzik, I.(1999). Self-actualization and other personality dimension as predictors of mental health of intellectually gifted students. *Roeper Review*,22.
- Renzulli, J. S.(1986). The three-ring conception of giftedness : A developmental model for creative productivity. In R. J. Sternberg & J. E. Davidson (Eds.). *Conceptions of Giftedness*,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mm, S. B.(1995). *Why bright kids get poor grades: And what you can do about it*. Crown Publishers, Inc.
- Sharon, M. D. (1999). *Change: Loss opportunity, and resil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Extensive Publication.
- Sternberg, R. (1985). *Beyond IQ: A triarchic theory of human*

- intellig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uper, D. E.(1955). The Dimensions and Measurement of Vocational maturity. *Teachers College Record*, 57, 151-163.
- Terman. L.M.(1925). *The mental and physical traits of a thousand gifted childre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United States of Office of Education(1978). *Marland report to the Parliament*.



## 부 록

#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 조사는 교육 연구를 위하여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문항들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번호를 골라 주시면 됩니다.

이 설문지의 문항은 맞거나 틀린 답이 없으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응답하신 설문지의 모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의 목적으로만 통계 처리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답변 하나 하나는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될 것입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1년 7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심리학과

박 성 희 드림

▣ 기초사항 ▣

소속	( )영재원 ( )반		
학년	( ) 학년	성별	남( ) 여( )
학업 성적	최상 ( ) 상 ( ) 중상 ( ) ※최근 전교 성적 : 최상(6%이내), 상(6-12%), 중상(12-20%)		
부의 교육 수준	국졸이하 ( ) 고졸 ( ) 대졸 ( )	중졸 ( ) 전문대졸 ( ) 대학원졸 ( )	

## 1. 자아 탄력성 설문지

▣ 다음 문항을 읽고 여러분 자신의 특성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친구의 말을 존중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할 일이 있으면 그 일을 끝내 놓고 쉬 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화가 나면 욕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새로운 반 친구가 생기면 그 친구에게 말을 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잘 될 것이라 생각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친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친구들을 보면 먼저 상냥하게 말을 건넨 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화가 난 경우에 혼자 산책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새로운 장난감을 보면 그 속에 무엇이 들 어 있는지 알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친구의 나쁜 점 보다도 좋은 점을 발견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친구가 고민하면 내 일처럼 함께 고민한 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우울할 때보다 즐거울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친구와 싸운 경우 그 친구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가보지 않은 생소한 길도 혼자서 잘 다 닌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5	나는 시험을 못 보았어도 다음번에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친구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잘 웃는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결과를 미리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궁금한 것(알고 싶은 것)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일이 잘못되어도 좋은 쪽으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를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일이 있을 때 앞장서서 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일이 뜻대로 안될 때 신경질을 낸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새로운 것을 보면 그것을 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노력해도 안되는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내가 잘못된 경우 먼저 사과한다.	①	②	③	④	⑤
27	다른 사람들은 내가 활기 있다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화가 나면 오랫동안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무엇(놀이, 공부)을 할 때 친구들과 다른 방법으로 한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는 걱정거리가 있으면 잠을 못 잔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는 나에게 잘해 주는 아이 하고만 사귈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32	나는 새롭고 신기한 일에 흥미를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33	나는 화가 나도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4	나는 교과서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35	나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쉽게 포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36	나는 내 또래의 아이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37	나는 우울할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38	나는 기분이 나쁜 경우에도 마음의 평화를 바로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39	나는 모르는 것은 누구에게 물어서라도 알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40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자신감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 2. 진로태도성숙도 설문지

▣ 다음 문항을 읽고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해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직업을 선택할 때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면을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갖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현재에도 앞으로의 직장 생활에 대해 상상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원하는 직업에 대해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직업을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7	비록 내 적성하고는 안 맞더라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내가 선택한 직업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9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갖기 위해서는 미리 미리 계획을 세워 놓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부모님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이미 진로가 결정되어 있어 진로를 선택하는데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근무 시간도 짧고 작업 환경도 좋은 직업을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가 선택한 직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만큼 잘 할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미래에 어떤 직업이 유망한 지를 알아보는 데 별로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번 호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	앞으로 되고자 하는 모습에 대해 자주 생각해보지만 실제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그 직업에서 출세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직업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9	내가 계획한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얻는 데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20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상관없이 결국은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주위 사람마다 서로 생각이 달라서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 지 혼란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일의 종류와 상관없이 봉급을 많이 주는 직업을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잘 할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신문을 읽을 때,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읽는다.	①	②	③	④	⑤
25	다른 사람의 지지가 있어야만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6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막막하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내 적성이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일류직장에 취업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8	내가 선택한 직업이 내가 되고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 줄지 걱정이다.	①	②	③	④	⑤
29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길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는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직업을 결정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31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해 놓은 상태이다.	①	②	③	④	⑤
32	직업을 선택할 때, 일의 성격 보다는 승진 기회 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3	나는 노력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4	졸업한 선배들이 진학 및 진로에 대해 설명회를 해주길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35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신대로 직업을 결정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6	나중에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해 놓았다.	①	②	③	④	⑤
37	직업을 통해 보람을 얻기보다는 편하게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38	나는 내 자신과 일에 대해 자신감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39	자신의 직업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을 보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그 사람처럼 행동하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40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1	무엇을 해야 할 지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42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직장의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을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3	특별히 결정된 사항이 없더라도 항상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4	내 경우, 부모님의 반대를 무릎 쓰고 진로를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5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46	아무리 노력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	①	②	③	④	⑤
47	자신의 흥미나 성격 등을 알아보기 위해 상담을 받길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이제 설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작성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